



# 월정사 성보박물관 소장 지정문화재

Woljeongsa Museum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 월정사 성보박물관 소장 지정문화재

Woljeongsa Museum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

일러두기

1.  
이 도록은 2019년 신축 월정사성보박물관 개관을 기념하여 발간하는 박물관 소장 지정문화재 도록이다.
2.  
유물의 세부사항은 시대, 크기, 지정사항 순으로 표기 하였으며, 유물의 크기는 세로×가로×높이이고 단위는 월정사팔각구층석탑과 월정사석조보살상은 m, 그 외는 모두 cm로 표기하였다.
3.  
유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부록으로 지정문화재 도판해설을 넣어 유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수록하였다.

---

## 차례

|     |                        |     |
|-----|------------------------|-----|
| I   | 월정시팔각구층석탑<br>월정사석조보살좌상 | 6   |
| II  | 상원사의 중창                | 16  |
| III | 불상                     | 50  |
| IV  | 불화                     | 68  |
| V   | 전적                     | 86  |
| VI  | 공예                     | 92  |
| VII | 의복                     | 98  |
|     | 도판해설                   | 102 |

---



## 발간사

문수성지 오대산은 643년 신라 선덕여왕대에 자장율사에 의해 월정사가 창건된 이래로 한국불교의 상징이자 수행처로써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석가모니부처님의 정골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국보, 보물 및 문화재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는 다수의 문화재들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전쟁, 화재와 도난 등으로 많은 유물이 유실되어 사라지는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은 문화재들을 보호하고 전시하기 위해 1974년 만화대선사께서 월정사 경내에 진열장과 보관시설을 갖춘 ‘보장각(寶藏閣)’을 건립하신 것이 월정사 정보박물관의 기원입니다. 이어 정보문화재 보존과 연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신규박물관이 건립되어 1999년 개관을 한 뒤,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어 본말사의 정보들을 보존·관리해 왔으며 월정사 경외로 신축 이전하여 2019년 새로이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월정사정보박물관에는 국보 제48-2호 월정사석조보살좌상, 제292호 평창상원사 중창권선문 2건의 국보와 5건의 보물 등 총 39건의 지정문화재를 비롯 4,000여 점의 다양한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2019년 신축 박물관의 재개관을 맞이하여 박물관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유물 중 지정문화재들을 대상으로 한 소도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개관하는 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을 연구하여 오대산의 천년의 역사를 현재의 우리들과 만나게 하는 다양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들을 기획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소장 유물들과 문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불교문화의 올바른 계승과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포교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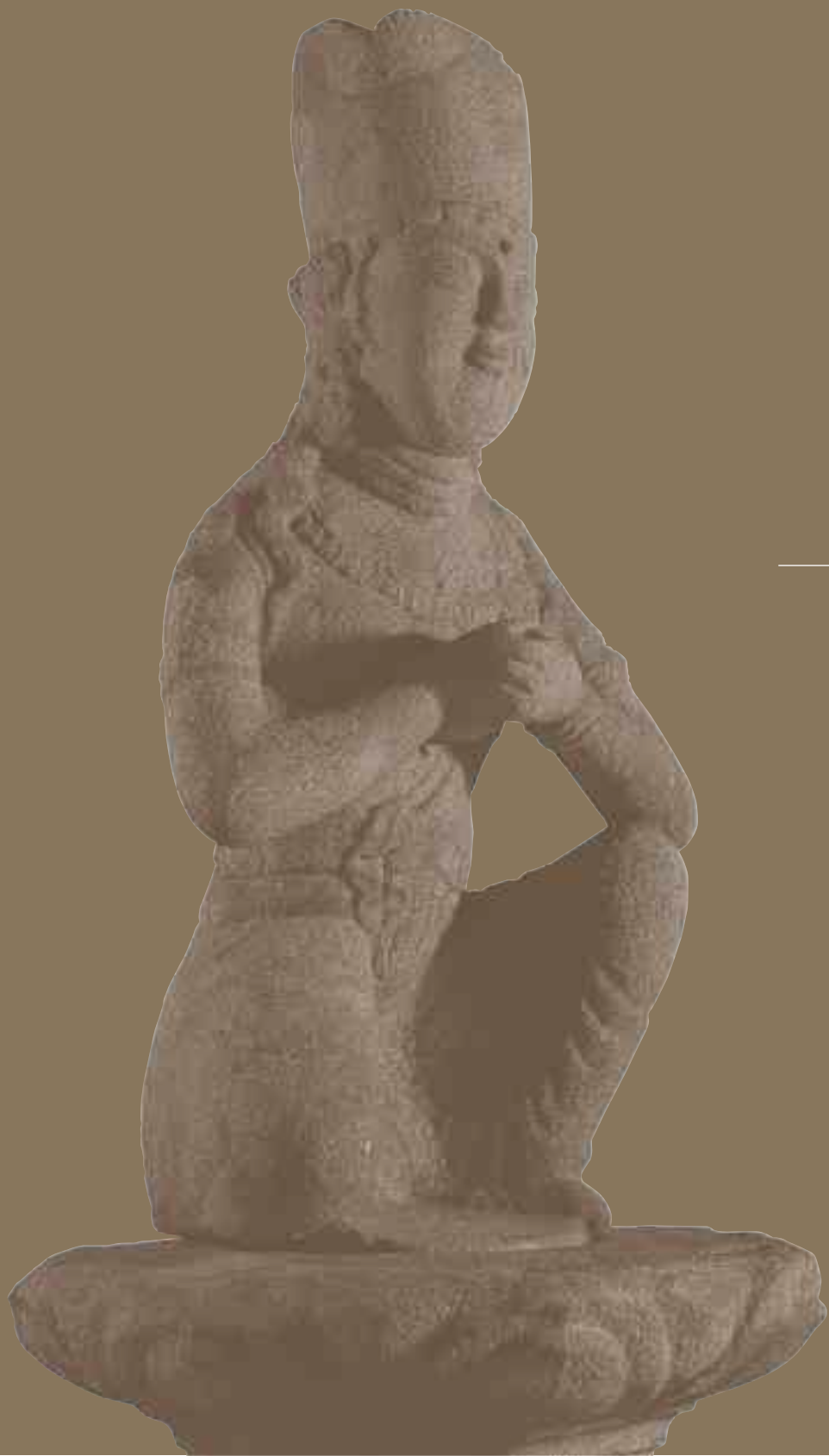
오대산의 문화와 전통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는 원동력이며 새로운 문화창조의 토양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이러한 역사·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금번 신축 월정사 성보박물관의 개관을 통해 오대산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 융성의 새로운 계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박물관 개관 및 박물관 발전에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불기 2563(2019)년 10월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 I.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석조보살좌상

- ▶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 ▶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사리장엄구
- ▶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01

##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平昌 月精寺 八角九層石塔

Octagonal Nine-story Stone Pagoda of  
Woljeongsa Temple, Pyeongchang

고려(10세기)  
높이 19.28m  
국보 제48-1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과  
석조보살상  
(1930년대 촬영)





02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사리장엄구

月精寺 八角九層石塔 舍利莊嚴具

Reliquaries from the Octagonal Nine-story Stone Pagoda of  
Woljeongsa Temple

고려(10세기)  
보물 제 1375호









2-1  
은제도금여래입상  
銀製鍍金如來立像

높이 9.7cm



2-2  
방형수라향갑낭  
方形繡羅香匣囊

6.0×5.7×1.0cm

2-3  
금동방형향갑  
金銅方形香匣

4.35×4.1×0.6cm





03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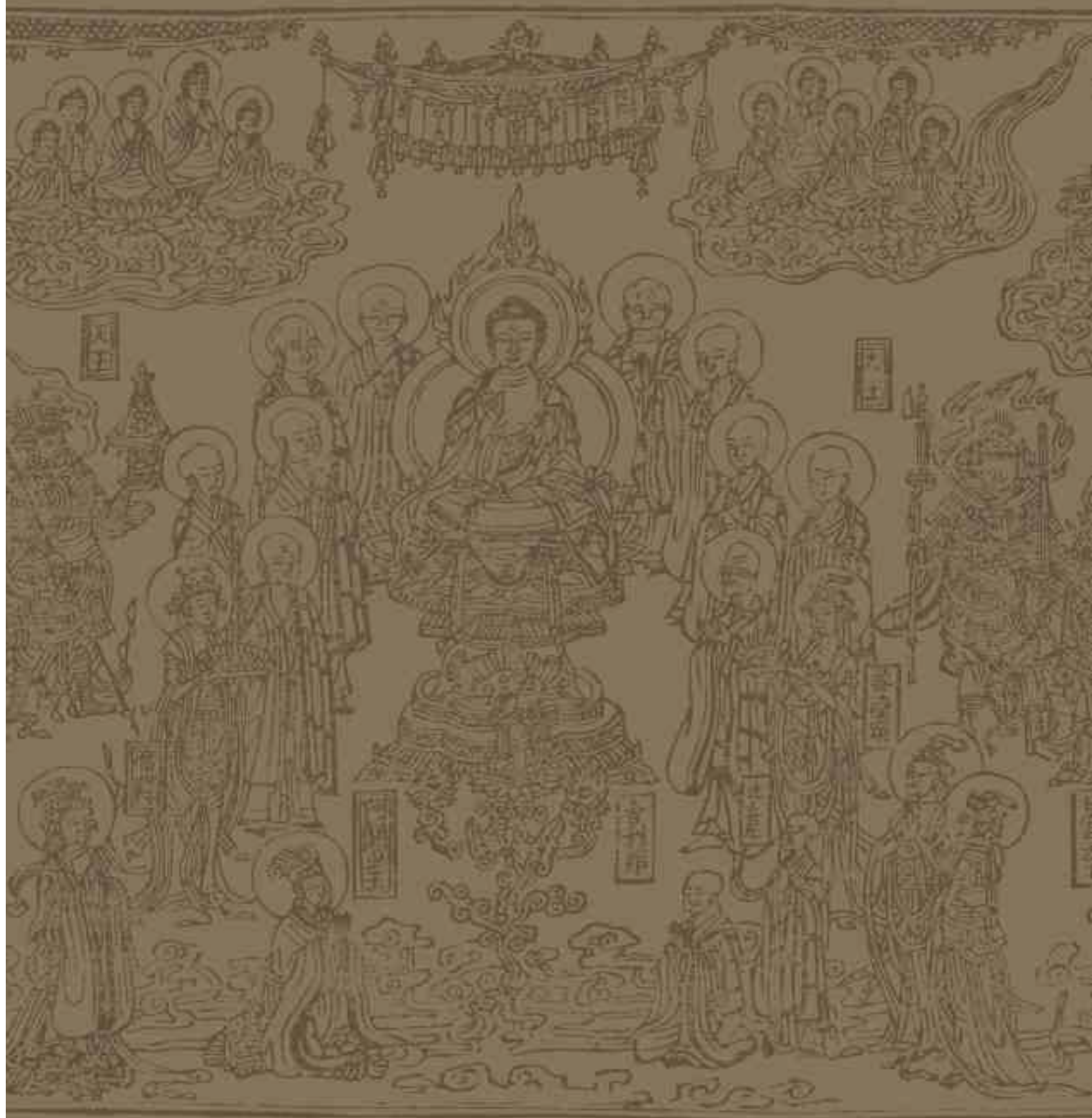
平昌 月精寺 石造菩薩坐像

Stone Seated Bodhisattva of Woljeongsa Temple, Pyeongchang



고려  
높이 1.8m  
국보 제48-2호





## II. 상원사의 중창

- ▶ 평창 상원사 중창권선문
- ▶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 ▶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 ▶ 세조대의 회장저고리
- ▶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 ▶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전적
- ▶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유물



04

평창 상원사 중창권선문

平昌 上院寺 重創勸善文

Document of Sangwonsa Temple, Pyeongch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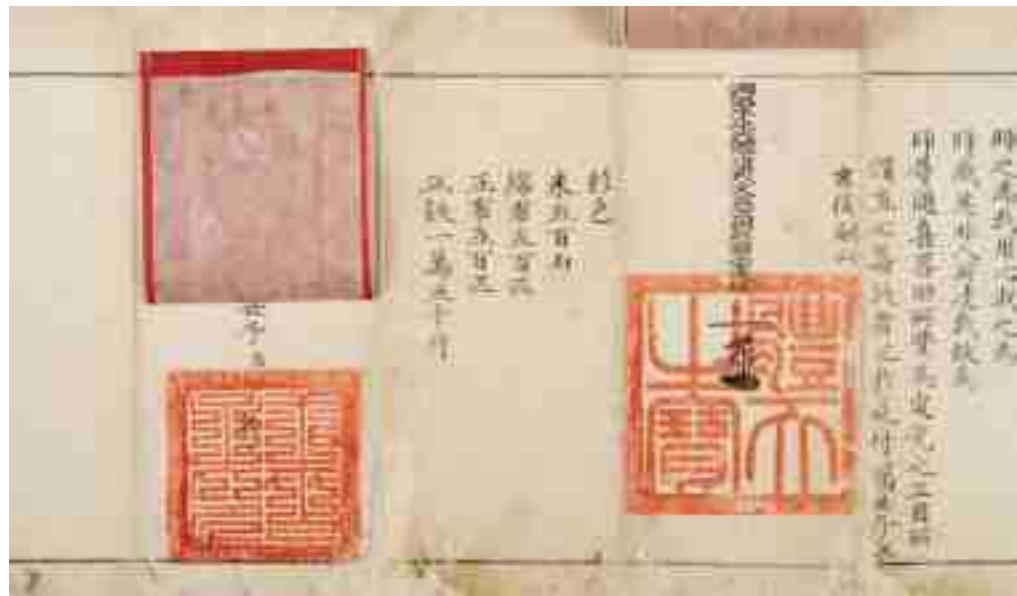
조선(1464년)

내고 30.0×12.0cm

국보 제292호







세조 및 세자 수결과(手決) 인기(印記)

상원사 중창권선문 (한문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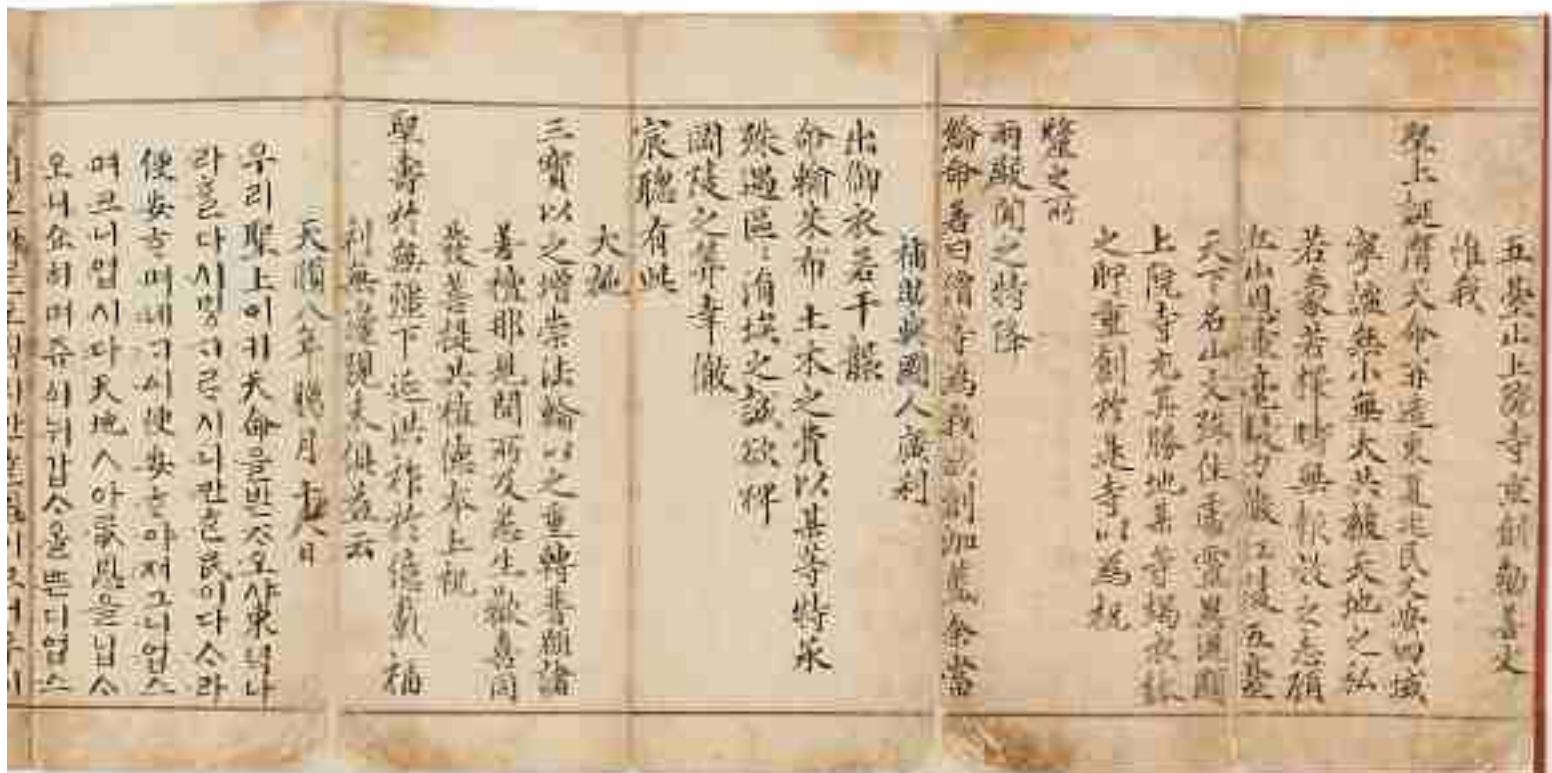






왕비 및 공주 기명(記名)과 인기(印記)

상원사 중창권선문 (언해본)





05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平昌 上院寺 木造文殊童子坐像

Wooden Seated Child Manjusri of Sangwonsa Temple,  
Pyeongchang

조선(1466년)

높이 98.0cm

국보 제221호



06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平昌 上院寺 木造文殊童子坐像 腹藏遺物

Excavated Relics from  
the Wooden Seated Child Manjusri of  
Sangwonsa Temple, Pyeongchang

보물 제793호

6-1

의숙공주발원문  
懿淑公主發願文

조선(1466년)  
31.5×24.0cm



6-2

중수발원문  
重修發願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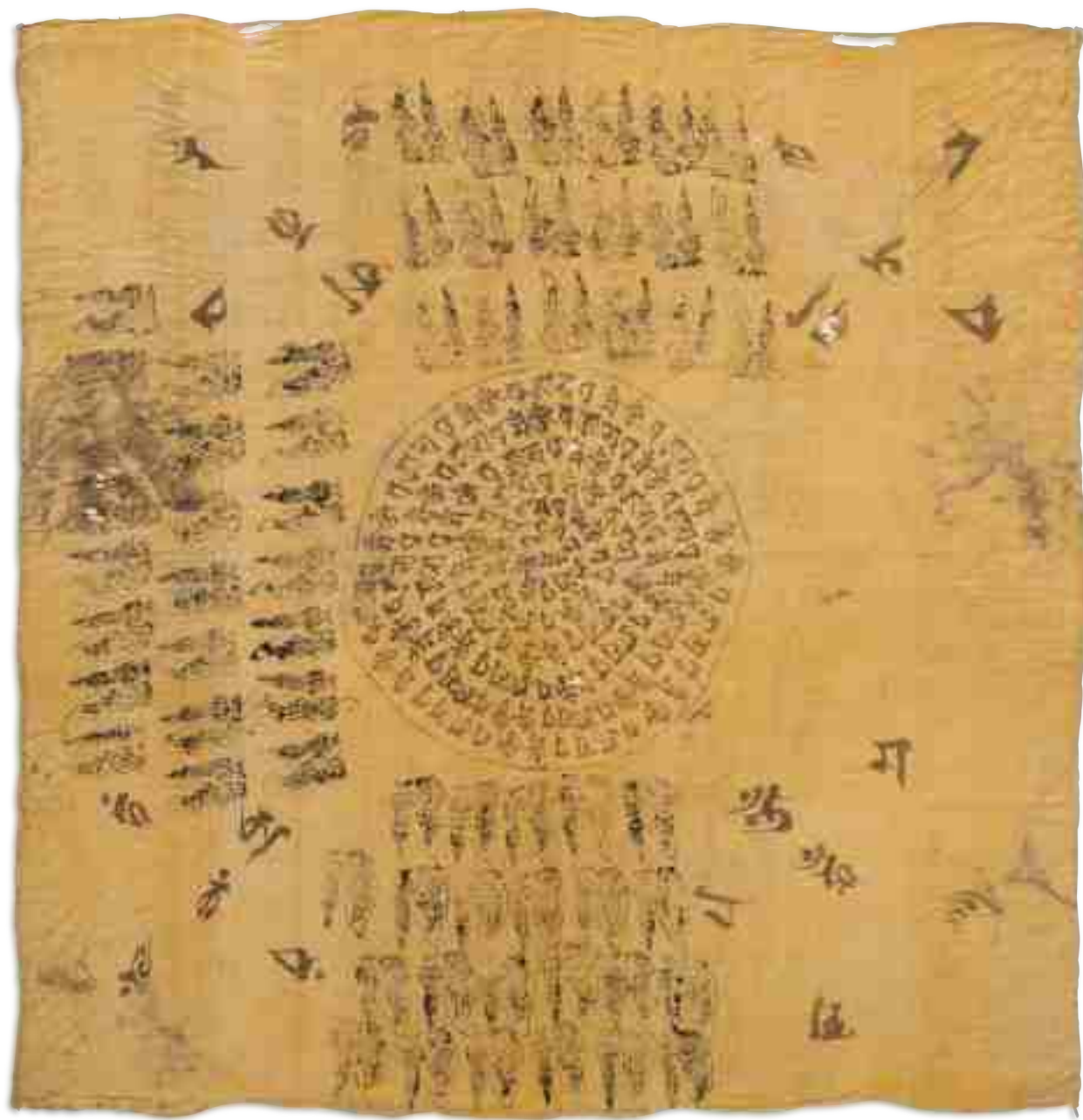
조선(1599년)  
34.6×29.1cm





6-3  
황초폭자  
黃綃幅子

57.0×58.0cm



6-4  
후령통  
候鈴筒

높이 10.5cm 지름 4.0cm



6-5  
백색수정보병  
白色水晶寶瓶

지름 4.5cm



6-6  
무공수정주  
無孔水晶珠

높이 3.3cm 지름 3.7cm



6-7  
사리 숀리  
舍利 舍利

지름 0.2cm

6-8  
화주 火珠

지름 0.9cm

6-9  
대방광불화엄경 권28  
大方廣佛華嚴經 卷28

고려(13세기 중반) | 내고 23.2cm



6-10  
세소자본 묘법연화경 권 1~7  
細小字本 妙法蓮華經 卷1~7

조선(1404년)  
7권 1첩, 목판본  
18.5×8.5cm





大方廣如來華嚴經卷第三十八

東亞文化三軌帶區域發展

十四卷第二十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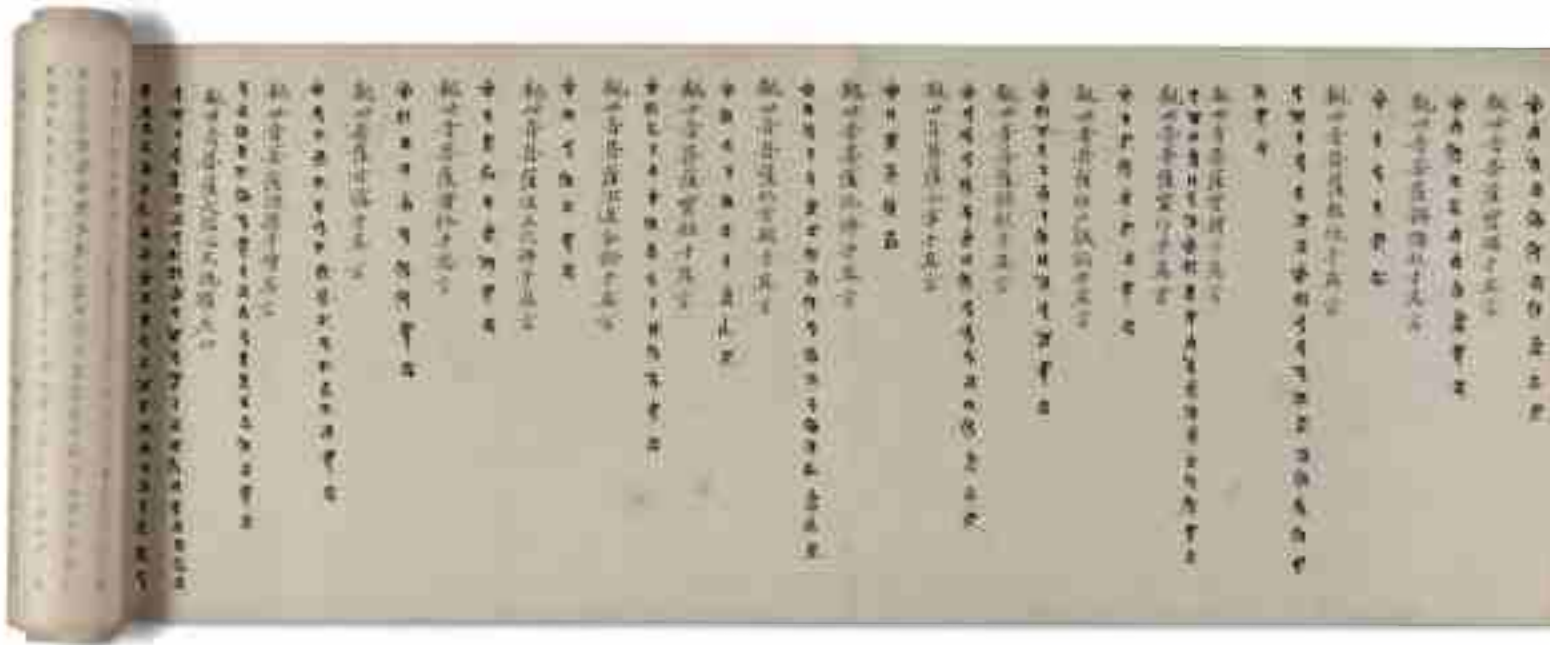
10

用所說覺心應摩打證者諸君當知子  
應摩打證有十種明何等為十止云應摩打  
證如三千大千世界眾生心心念隨轉生二  
不覺心無記心廣心心居心心勝心心顯生死  
心背生死心聲聞心緣覺心善權心聲聞行  
心緣覺行心菩薩行心心龍心夜叉心人  
間天心阿修羅心他化自在天眾那由他心  
國羅施眾生心情障此眾生心如是一等無量  
種種眾生心能分別知如是等百世界十二  
層百千世界億世界百萬億世界千億世界百  
千億世界乃至百千億那由他些界廣說方  
且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如來眾生心  
能分別知其心念佛子是為菩薩摩訶薩其  
一譬如使心智照佛子菩薩摩訶薩住如如  
是無數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世界衆  
生死法生後善惡隨處若好若惡若苦若樂  
若喜若瞋自如是等無量種種眾生天龍夜叉  
三閻浮提阿修羅迦樓羅緊那摩睺羅伽人  
非人鐵樹銅樹金小眾生中藥生大藥出時草  
生如是等百千萬億那由他眾生此生從前諸尊  
何像以多壽光明淨天眼能見諸凡隨其至  
處所受令種種體常種種行種種思願種種  
見如業現思如智迴轉也既能見佛子是為  
菩薩摩訶薩第二無數大威智爾佛子等釋  
摩訶薩憶宿今事或曰或他世惟憶今者  
無數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世界衆生  
過去無量無數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  
劫事如是生如是死如是食如是苦樂悲  
歡了知又推過去無量無數不可說不可說  
佛刹微塵數諸佛如是名号如是眷屬如是  
父母如是侍者如是眷屬如是策磨二大第  
子如是捨離五欲求寂滅如是菩提樹下

如是是開神妙之心

宣講經師院抄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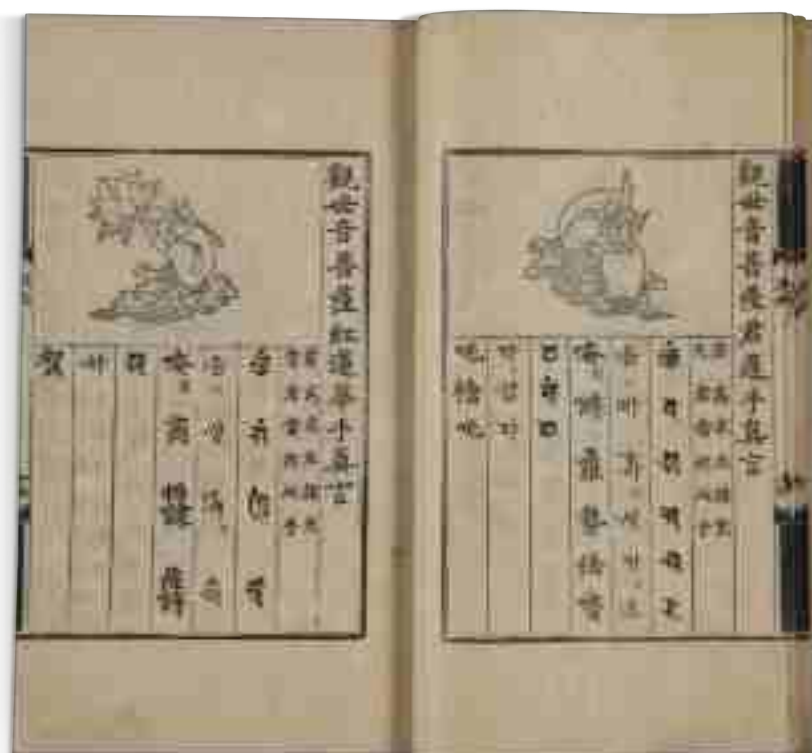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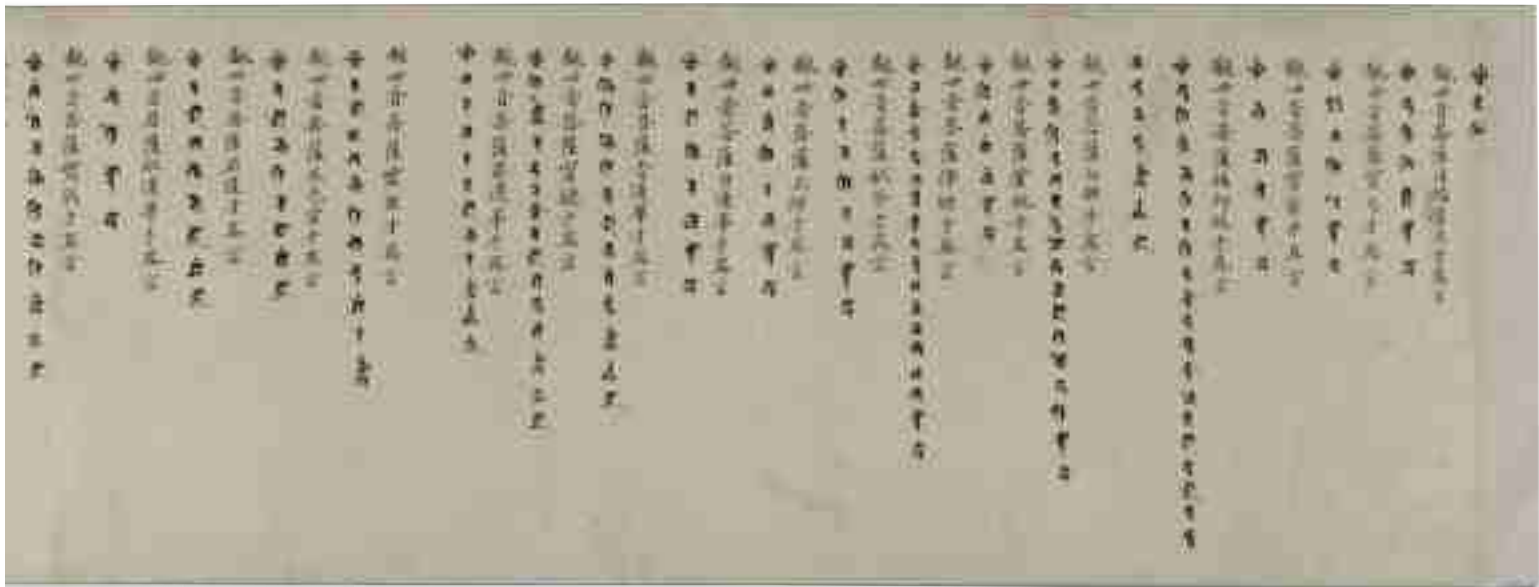
6-11  
백지묵서제진언  
白紙墨書諸眞言

조선(1463년)  
41.8×679.3cm

6-12  
오대진언  
五大眞言

조선(1485년)  
목판본  
18.1×12.2cm





6-13  
 소자본 묘법연화경 권1~7  
 小字本 妙法蓮華經 卷1~7

조선(1399년)  
 7권 2책, 목판본  
 18.6×12.5cm



6-14

을해자본 묘법연화경 권6~7  
乙亥字本 妙法蓮華經 卷6~7

조선(1466년 이전)  
2권 1책, 금속활자본  
27.2×19.6cm



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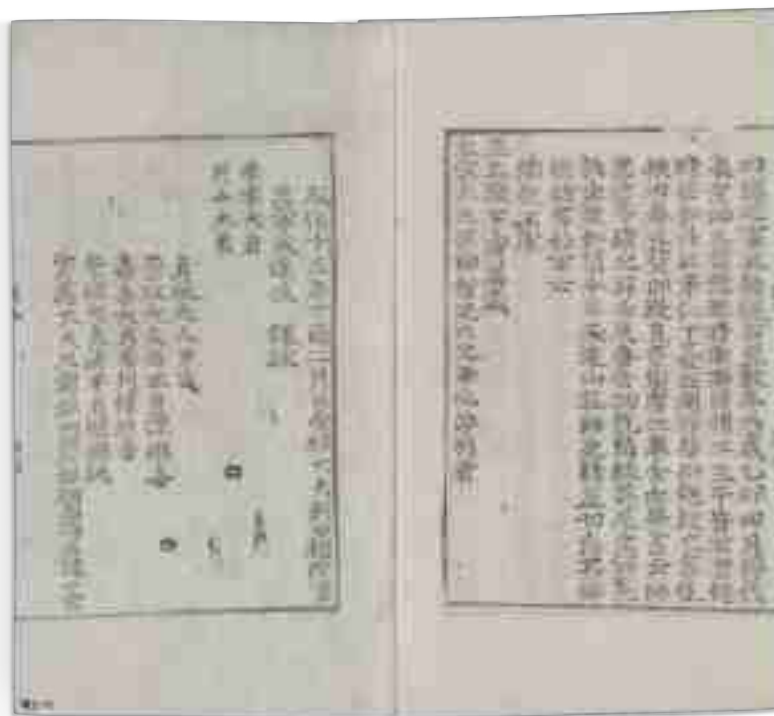
화암사판 묘법연화경 권1~3  
華岩寺板 妙法蓮華經 卷1~3

조선(1433년)  
3권 1책, 목판본  
20.8×13.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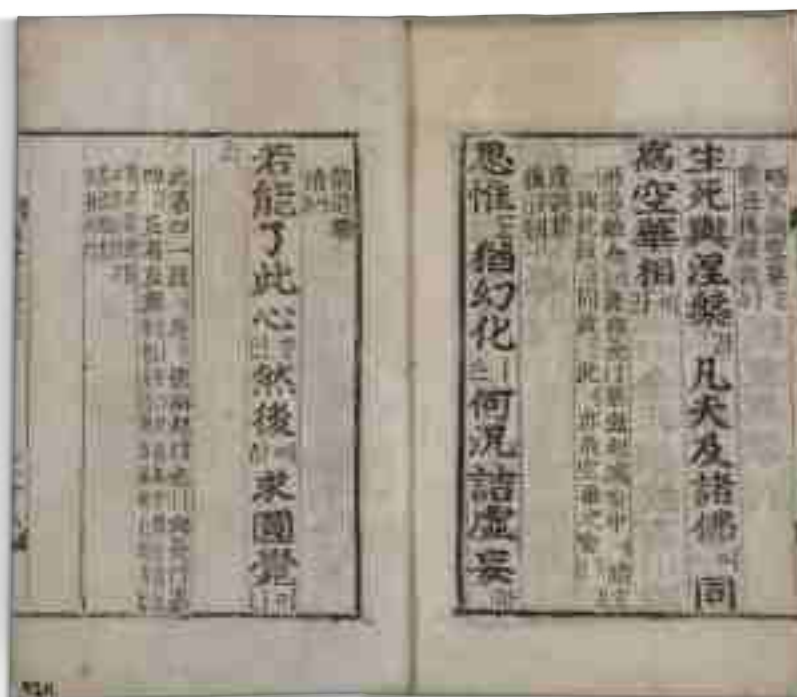
6-16  
희방사판 묘법연화경 권5~7  
喜方寺板 妙法蓮華經 卷5~7

조선(1561년)  
3권 1책, 목판본  
20.2×13.5cm



6-17  
을유자본 원각경언해, 상2-2~3  
乙酉字本 圓覺經諺解 上2-2~3

조선(1465년)  
2권 1책, 금속활자본  
19.0×13.3cm





6-18

신흥사판 원각경 권 상·중·하  
新興寺板 圓覺經 卷 上·中·下

조선(1564년)

3권 1책, 목판본

18.3×13.3cm



6-19

영제암판 육경합부  
永濟菴板 六經合部

조선(1472년)

1권 1책, 목판본

19.5×13.5cm



6-20

중대사판 육경합부  
中臺寺板 六經合部

조선(1460년)  
1권 1책, 목판본  
19.5×12.5cm



6-21

화암사판 육경합부  
花岩寺板 六經合部

조선(1488년)  
1권 1책, 목판본  
19.0×13.0cm



6-22  
명주적삼  
明紬單衫

길이 72cm







6-23

생명주적삼  
生明袖單衫

길이 65.0cm



07

## 세조대의 회장저고리

世祖代回裝赤古里

Jacket with decorative patches on the collar, front opening, cuffs and shoulders from the King Sejo period

조선(1460년대 추정)  
길이 52.4cm 폭 34.0cm  
상원사문수동자상복장  
국가민속문화재 제219호



08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平昌 上院寺 木造文殊菩薩坐像 · 腹藏遺物

Wooden Seated Manjusri Bodhisattva and Excavated Relics of  
Sangwonsa Temple, Pyeongchang

보물 제1811호

8-1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平昌 上院寺 木造文殊菩薩坐像

조선(1661년)

높이 117.0cm





8-2  
후령통 候鈴筒

높이 13.0cm



性

Figure 1. The effect of the concentration of the inhibitor on the rate of polymerization of  $\alpha$ -methylstyrene in the presence of  $\text{SnCl}_4$  at  $25^\circ\text{C}$ .

所關尤重一應防堵

卷之六





09

##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전적

平昌 上院寺 木造文殊菩薩坐像 腹藏典籍

Excavated Documents from the Wooden Seated Manjusri Bodhisattva of Sangwonsa Temple, Pyeongchang

보물 제1812호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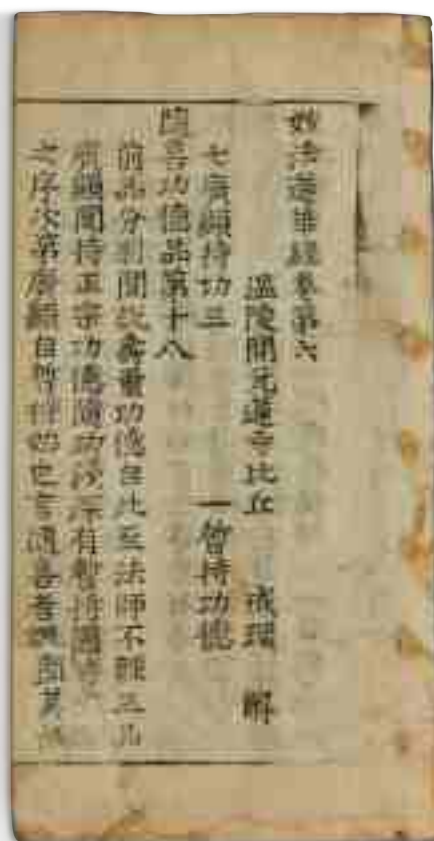
묘법연화경 권 6

妙法蓮華經 卷 6

여말 선조(14세기 추정)

1권 1책, 목판본

32.0×16.0cm





9-1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  
白紙墨書金剛般若波羅蜜經

여말 선조(14세기 추정)  
2권 1첩, 필사본  
39.3×12.6cm





10

평창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유물

平昌 上院寺 木造文殊菩薩坐像 腹藏遺物

Excavated Relics from the Wooden Seated Manjusri Bodhisattva of  
Sangwonsa Temple, Pyeongchang

강원도문화재자료  
제170호

10-1  
전적류 일괄  
典籍類 一括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卷之三  
世宗憲皇帝  
御製  
詩經  
卷之三  
世宗憲皇帝  
御製  
詩經

卷之三  
世宗憲皇帝  
御製  
詩經  
卷之三  
世宗憲皇帝  
御製  
詩經

觀世音菩薩聖像記

觀世音菩薩聖像記  
世宗憲皇帝  
御製  
觀世音菩薩聖像記  
世宗憲皇帝  
御製  
觀世音菩薩聖像記  
世宗憲皇帝  
御製

觀世音菩薩聖像記  
世宗憲皇帝  
御製  
觀世音菩薩聖像記  
世宗憲皇帝  
御製  
觀世音菩薩聖像記  
世宗憲皇帝  
御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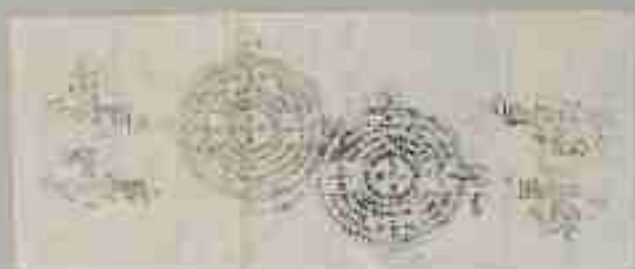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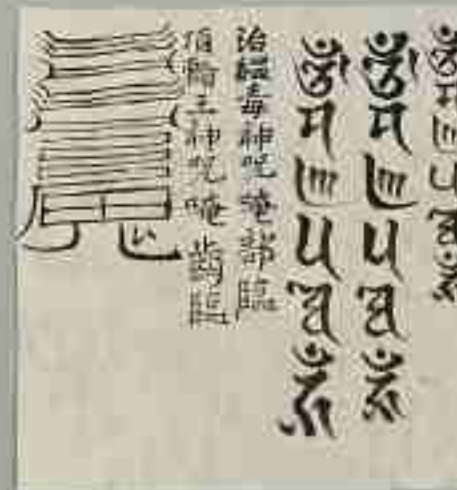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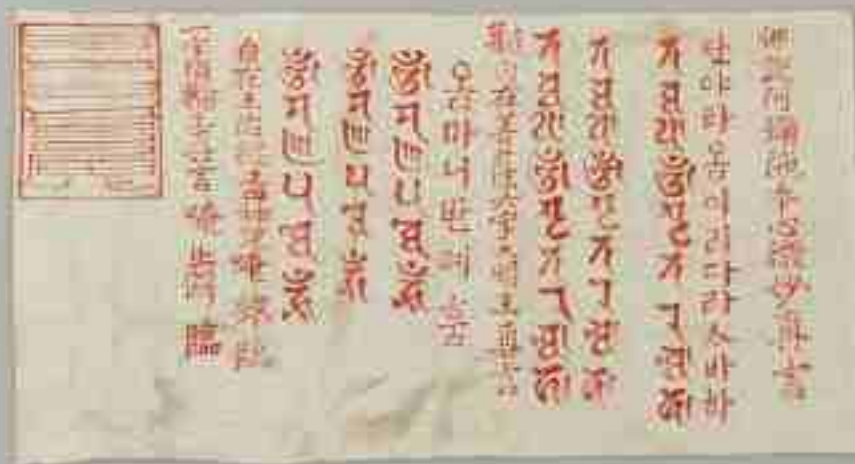
觀世音菩薩聖像記  
世宗憲皇帝  
御製  
觀世音菩薩聖像記  
世宗憲皇帝  
御製  
觀世音菩薩聖像記  
世宗憲皇帝  
御製



10-3

다라니 일괄 ②

陀羅尼 一括 ②





佛說阿彌陀經微妙真言  
 此經所云之三昧時今時計  
 不更作此也乃一經而  
 乃三經也乃一經而  
 乃三經也乃一經而  
 乃三經也乃一經而  
 觀自在菩薩六字大明王真言  
 〇此以世間立也  
 〇此以世間立也

此經所云之三昧時今時計  
 不更作此也乃一經而  
 乃三經也乃一經而  
 乃三經也乃一經而  
 乃三經也乃一經而

此經所云之三昧時今時計  
 不更作此也乃一經而  
 乃三經也乃一經而  
 乃三經也乃一經而  
 乃三經也乃一經而



# III. 불상

- ▶ 월정사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 ▶ 월정사 북대 고운암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 ▶ 월정사 북대 고운암 목조미륵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 ▶ 평창 월정사 남대 지장암 목조지장삼존불감
- ▶ 월정사 육수관음상
- ▶ 영원사 목불좌상 및 복장유물
- ▶ 운흥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및 복장유물
- ▶ 삼척 천은사 금동약사여래입상
- ▶ 영월 보덕사 석조약사여래좌상
- ▶ 삼척 지장암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복장유물



11

평창 월정사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平昌 月精寺 中臺 獅子庵 木造毘盧遮那佛坐像 · 服藏遺物

Wooden Seated Vairochana Buddha and Excavated Relics in Sajaam Heritage in Jungdae or  
Biro-bong Peak of Woljeongsa Temple, Pyeongchang

11-1

평창 월정사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平昌 月精寺 中臺 獅子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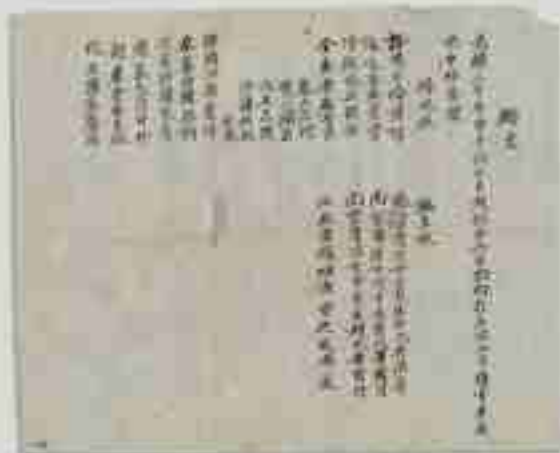
木造毘盧遮那佛坐像

조선 후기

높이 3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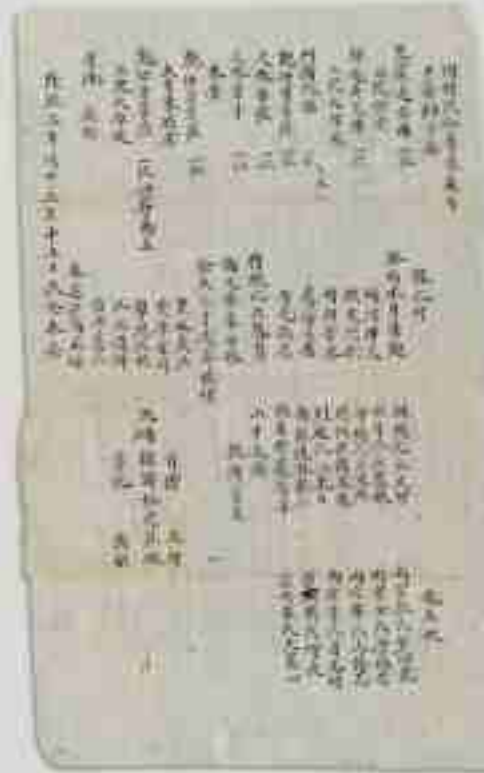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7호





11-2  
중수발원문  
重修發願文

조선(1894년)  
30.0×36.0cm



11-3  
개금발원문  
改金發願文

조선(1908년)  
50.0×29.0cm



11-4  
범서  
梵書

조선(1456년)  
27.0×40.0cm

12

월정사 북대 고운암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月精寺 北臺 孤雲庵 木造釋迦如來坐像 · 腹藏遺物

Wooden Seated Statue of Buddha and Excavated Relics in Gounam  
Hermitage in the North of Woljeongsa Temple

조선(1710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1호

12-1

월정사 북대 고운암  
목조석가여래좌상  
月精寺 北臺 孤雲庵  
木造釋迦如來坐像

높이 43.5cm





12-2  
복장유물 일괄  
服藏遺物 一括



12-3  
후령통 候鈴筒

높이 6.2cm 지름 3.5cm



13

평창 월정사 북대 고운암 목조미륵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平昌 月精寺 北臺 孤雲庵 木造彌勒菩薩坐像 · 服藏遺物

Wooden Seated Statue of Buddha and Excavated Relics in Gounam Hermitage in the North of Woljeongsa Temple, Pyeongchang

13-1

평창 월정사 북대 고운암

목조미륵보살좌상

平昌 月精寺 北臺 孤雲庵

木造彌勒菩薩坐像

조선(1710년)

높이 43.5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9호





13-2  
복장유물 일괄  
服藏遺物 一括



13-3  
후령통 候鈴筒  
높이 6.2cm 지름 3.5cm

14

평창 월정사 남대 지장암 목조지장삼존불감

平昌 月精寺 南臺 地藏庵 木造地藏三尊佛龕

Portable Shrine with Wooden Seated Triad-Buddha Statues of  
Ksitigarbha in Jijangam Hermitage in the South of Woljeongsa Temple,  
Pyeongchang

조선 후기

높이 29.0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8호





15

월정사 육수관음상

月精寺 六手觀音像

Statue of 6-hands Avalokitesvara in Woljeongsa Temple

조선(15세기)

높이 45.0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53호





16

영원사 목불좌상 및 복장유물

鵠願寺 木佛坐像 · 腹藏遺物

Wooden Seated Statue of Buddha and Excavated  
Relics in Yeongwonsa Temple

조선 후기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0호

16-1

영원사 목불좌상

鵠願寺 木佛坐像

높이 63.0cm





16-2  
능엄경언해  
楞嚴經諺解

조선(1462년)  
25.5×20.5cm



16-3  
쌍계사판 묘법연화경언해 권2  
雙溪寺板 妙法蓮華經諺解 卷2

조선(1545년)  
21.8×18.0cm



16-4  
복장유물 일괄  
服藏遺物 一括

17

운흥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및 복장유물

雲興寺 木造阿彌陀佛坐像 · 腹藏遺物

Wooden Seated Statue of Amitabha Buddha and  
Excavated Relics in Unheungsa Te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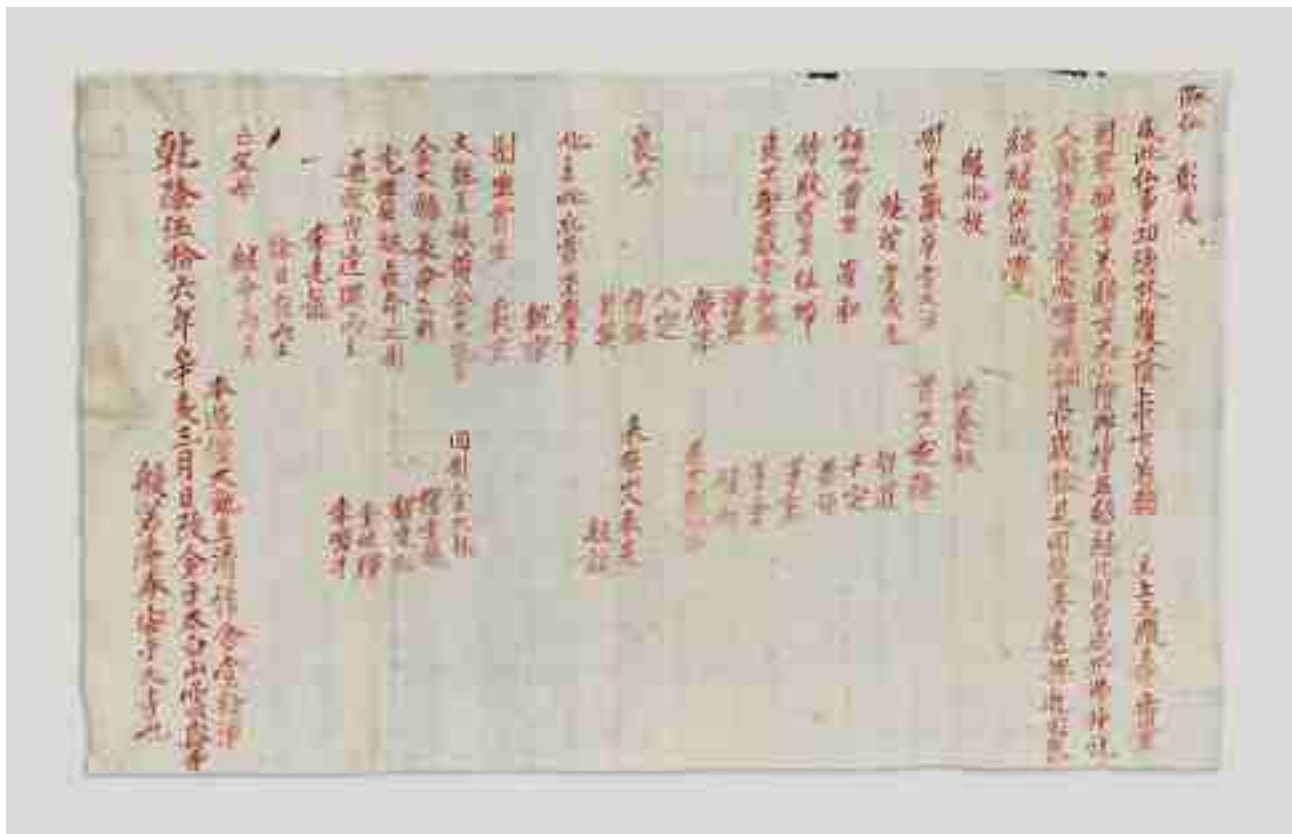
조선(1791년 개금)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2호

17-1

운흥사 목조아미타불좌상  
雲興寺 木造阿彌陀佛坐像

높이 43.3cm





17-2  
개금발원문  
改金發願文

조선(1791년)  
35.0×65.0cm



17-3  
후령동  
候鈴筒

높이 5.9cm 지름 3.6cm



18

삼척 천은사 금동약사여래입상

三陟 天恩寺 金銅藥師如來立像

Gilt-bronze Standing Buddha in Cheoneunsa Temple in Samcheok



통일신라  
높이 14.3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8호

19

영월 보덕사 석조약사여래좌상

寧越 報德寺 石造藥師如來坐像

Stone Seated Buddha in Bodeogsa Temple in Yeongwol

조선 후기

높이 31.5cm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57호



20

삼척 지장암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복장유물

三陟 地藏庵 木造地藏菩薩坐像 · 腹藏遺物

Wooden Seated Statue of Ksitigarbha and Excavated Relics in  
Jijangam Hermitage in Samche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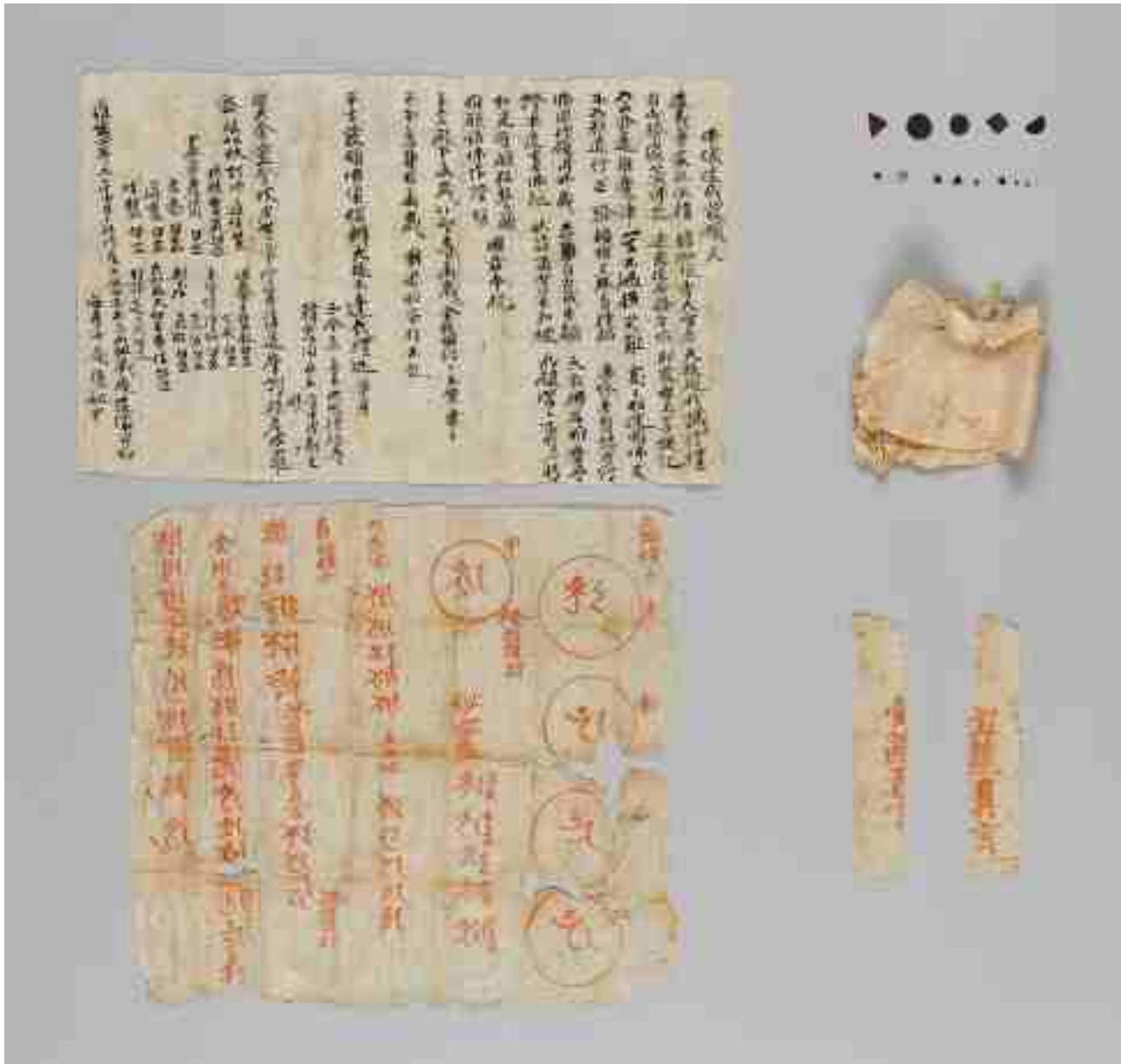
조선(1726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69호

20-1  
삼척 지장암 목조지장보살  
三陟 地藏庵 木造地藏菩薩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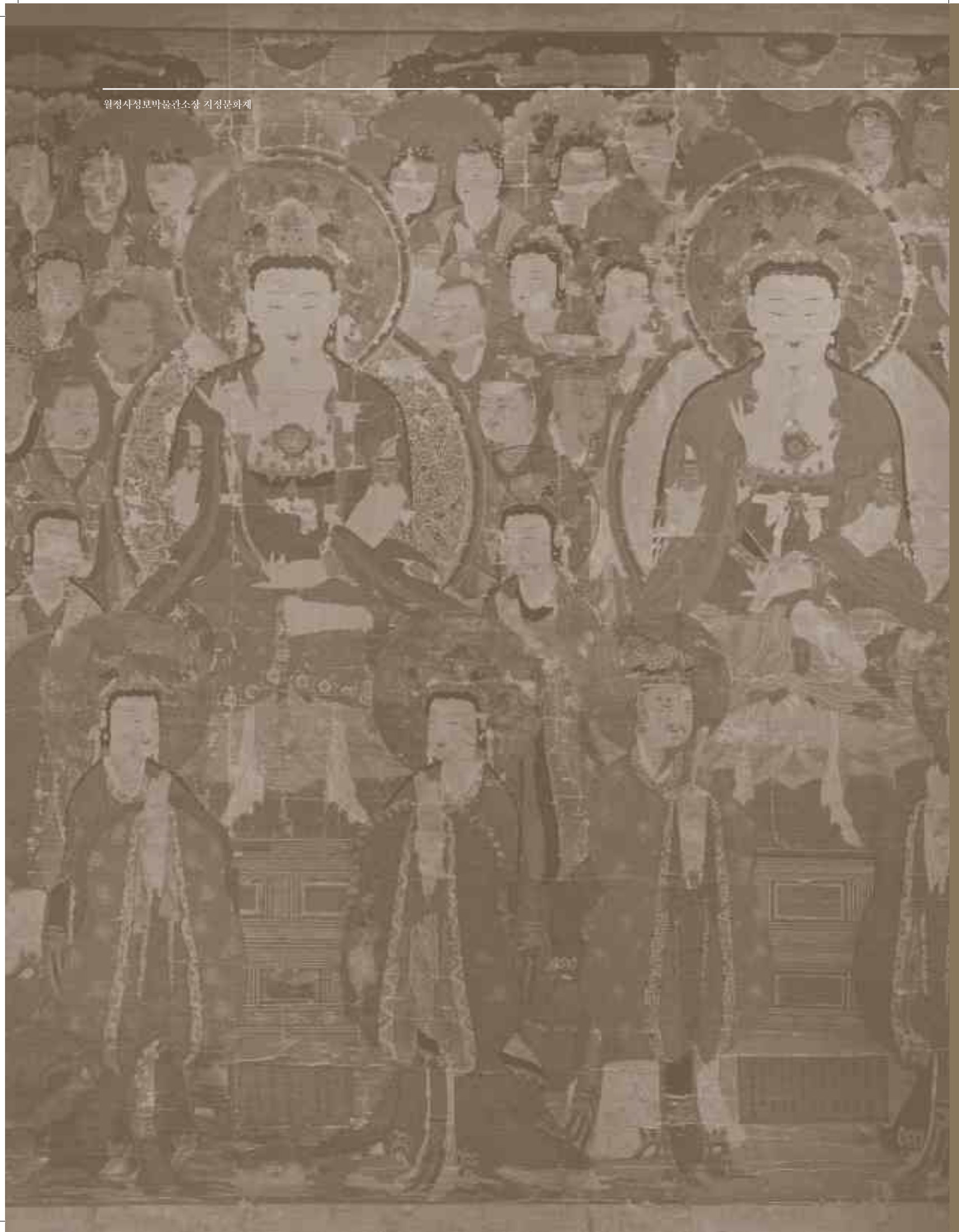
높이 23cm



20-2  
복장유물 일괄  
服藏遺物 一括







## IV. 불화

- ▶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
- ▶ 구룡사 삼장보살도 복장유물
- ▶ 삼척 영은사 괘불
- ▶ 영원사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 ▶ 영원사 감로탱화
- ▶ 운수암 관음변상탱화
- ▶ 운흥사 천룡탱화
- ▶ 강릉 백운사 소장 현왕도
- ▶ 보덕사 사성전 후불탱화 및 복장유물
- ▶ 삼척 영은사 석가삼존도와 복장유물
- ▶ 영은사 범일국사 진영
- ▶ 영은사 사명당대선사 진영
- ▶ 강릉 보현사 십육나한도

21

##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

原州 龜龍寺 三藏菩薩圖

Buddhist Painting of Three Bodhisattvas in  
Guryongsa Temple, Wonju

조선(1727년)  
비단에 채색  
170.0×251.0cm  
보물 제1855호



22

구룡사 삼장보살도 복장유물

龜龍寺 三藏菩薩圖 服藏遺物

Buddhist Painting of Three Bodhisattvas and a Collection of  
Excavated Relics in Guryongsa Temple

조선(1727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6호





23

삼척 영은사 괘불

三陟 靈隱寺 掛佛

Long Hanging Buddhist Scroll Painting in  
Yeongeunsa Temple, Samcheok

조선(1856년)  
비단에 채색  
840×503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8호



24

영원사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鵠願寺 毘盧遮那佛 後佛幀畫

Hanging Scroll Painting of Vairocana Buddha behind  
the Buddha in Yeongwonsa Temple

조선(1759년)

비단에 채색

178.5×204.0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4호





25

## 영원사 감로탱화

鵠願寺 甘露幀畫

Buddhist Painting of Buddha Giving a Sermon in  
Yeongwonsa Temple

조선(1759년)

비단에 채색

138×165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5호



26

운수암 관음변상탱화

雲水庵 觀音變相幀畫

Buddhist Painting of Avalokitesvra in  
Unsuam Hermitage

조선(1790년)

흑색 비단에 금선묘

61.0×40.0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7호





27

운흥사 천룡탱화

雲興寺 天龍幀畵

Buddhist Painting of a thousand Dragons in  
Unheungsa Temple

조선(1755년)

모시에 채색

98.0×85.0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8호



28

강릉 백운사 소장 현왕도

江陵 白雲寺 所藏 現王圖

Painting of Samantabhadra Bodhisattva and his assistants in the  
nether world in Baegunsa Temple in Gangneun

조선(1879년)

비단에 채색

116.0×101.5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75호





29

보덕사 사성전 후불탱화 및 복장유물

報德寺 四聖殿 後佛幀畫 · 腹藏遺物

Hanging Scroll Painting behind the Buddha and Excavated Relics in  
the Hall of Saseung (four saints) in Bodeoksa Temple

조선(1868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9호

29-1

보덕사 사성전 후불탱화  
報德寺 四聖殿 後佛幀畫

비단에 채색  
178×227cm



29-2  
복장유물 일괄  
服藏遺物 一括





30

삼척 영은사 석가삼존도 및 복장유물

三陟 靈隱寺 釋迦三尊圖 · 腹藏遺物

Painting of Shakyamuni Triad and Excavated Relics in  
Yeongunsa Temple, Samcheok

조선(1841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70호

30-1

삼척 영은사 석가삼존도  
三陟 靈隱寺 釋迦三尊圖

비단에 채색  
198.0×287.0cm





30-2  
후령통 候鈴筒

12.0×8.6×2.0cm

30-3  
복장유물 일괄  
服藏遺物 一括



31

영은사 범일국사 진영

靈隱寺 梵日國師 眞影

Portrait of National Preceptor Beomil in  
Yeongunsa Temple



조선(1788년)  
비단에 채색  
94.5×63.0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0호



32

영은사 사명당대선사 진영

靈隱寺 四溟堂大師 眞影

Portrait of Great Seon Master Samyeongdang in  
Yeongsusa Temple



조선후기  
비단에 채색  
95.5×65.0 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1호



33

강릉 보현사 십육나한도

江陵 普賢寺 十六羅漢圖

Painting of Sixteen Arhats in Bohyeonsa Temple in Gangneung

조선(1882년)  
비단에 채색  
100.5×194.0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71호





中臺香閣

十旬  
淨業

中臺香閣  
十旬  
淨業

一庵警言誼

覺靈

比丘希日

比丘學輝

比丘弘信

比丘勝友

# V. 전적

- ▶ 팔만대장경(고려대장경)
- ▶ 오대산 중대불량문
- ▶ 오대산 중대불량계원수복문
- ▶ 평창 오대산사고등록



34

팔만대장경(고려대장경)

八萬大藏經(高麗大藏經)

Tripitaka Koreana

1865년 인경

24.0×84.6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54호



35

# 오대산 중대불량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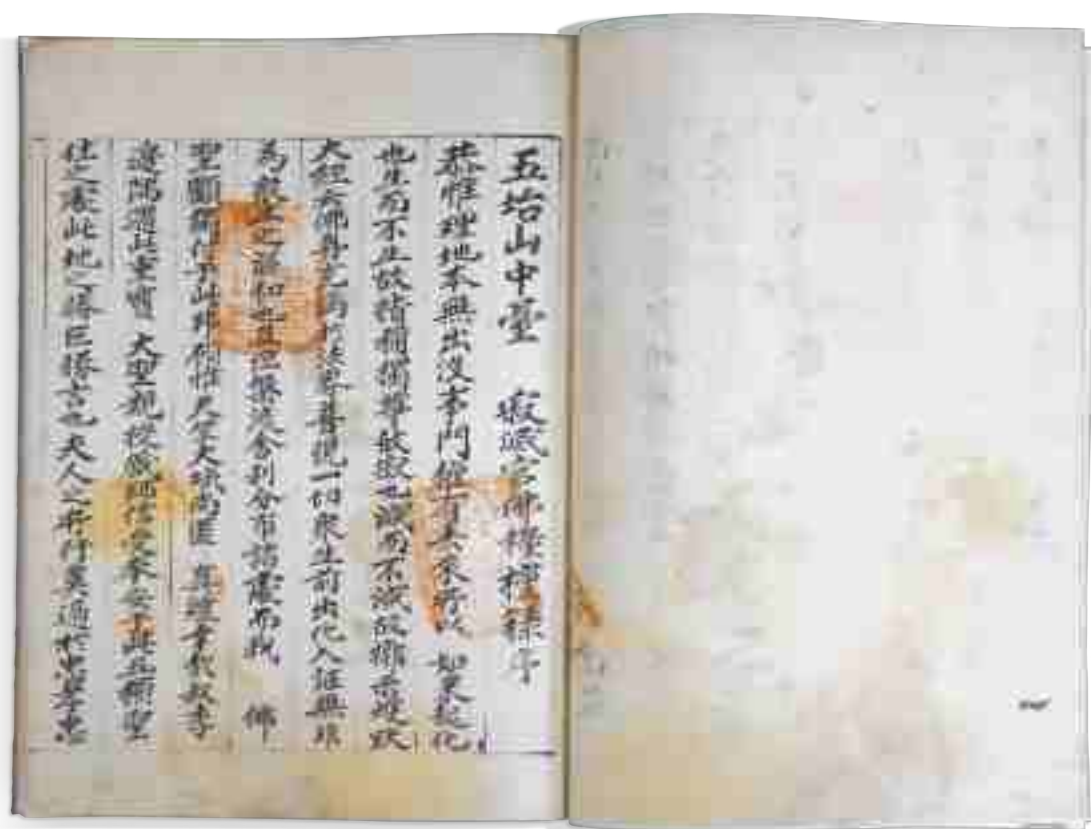
五臺山 中臺佛糧文

Book containing the list of donors both monastics and laypeople  
for reconstructing Jungdae Shrine or the Hall of Sublime  
Equanimity in Mt. Odaesan in the late-Joseon period

조선(1814년)

34.5×26.6cm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34호



36

오대산 중대불량계원수복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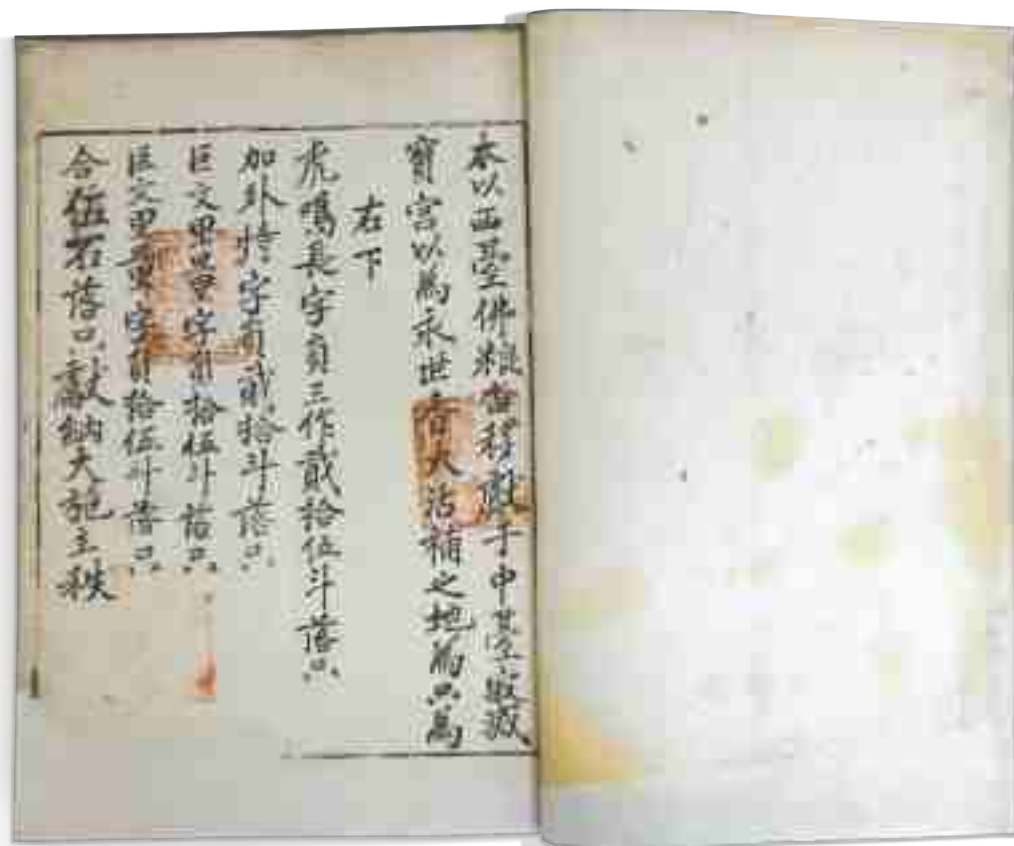
五臺山 中臺佛糧禊員樹福文

Transfer record of a rice field to Jungdae Shrine or the Hall of Sublime Equanimity from Seodae Shrine in Mt. Odacsan in the late-Joscon period

조선(1825년)

41.4×29.6cm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35호



조선(1840~1841년)

29.0×27.5cm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59호







## VI. 공예

- 
- ▶ 용다사 동종
  - ▶ 평창 월정사 밀부

38

용다사 동종

龍茶寺 銅鍾

Bronze Bell of Yongdasa Temple

조선(1787년)

높이 51.0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3호







39

평창 월정사 밀부

平昌 月精寺 密符

Disc used for mobilizing military forces given to  
Woljeongsa Temple in Pyeongchang

조선(1800년)

지름 5.3cm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58호







# VII. 의복

▶ 한암스님 가사



40

한암스님 가사

漢巖袈裟

Kasaya of Venerable Hanam

일제강점기

등록문화재 제64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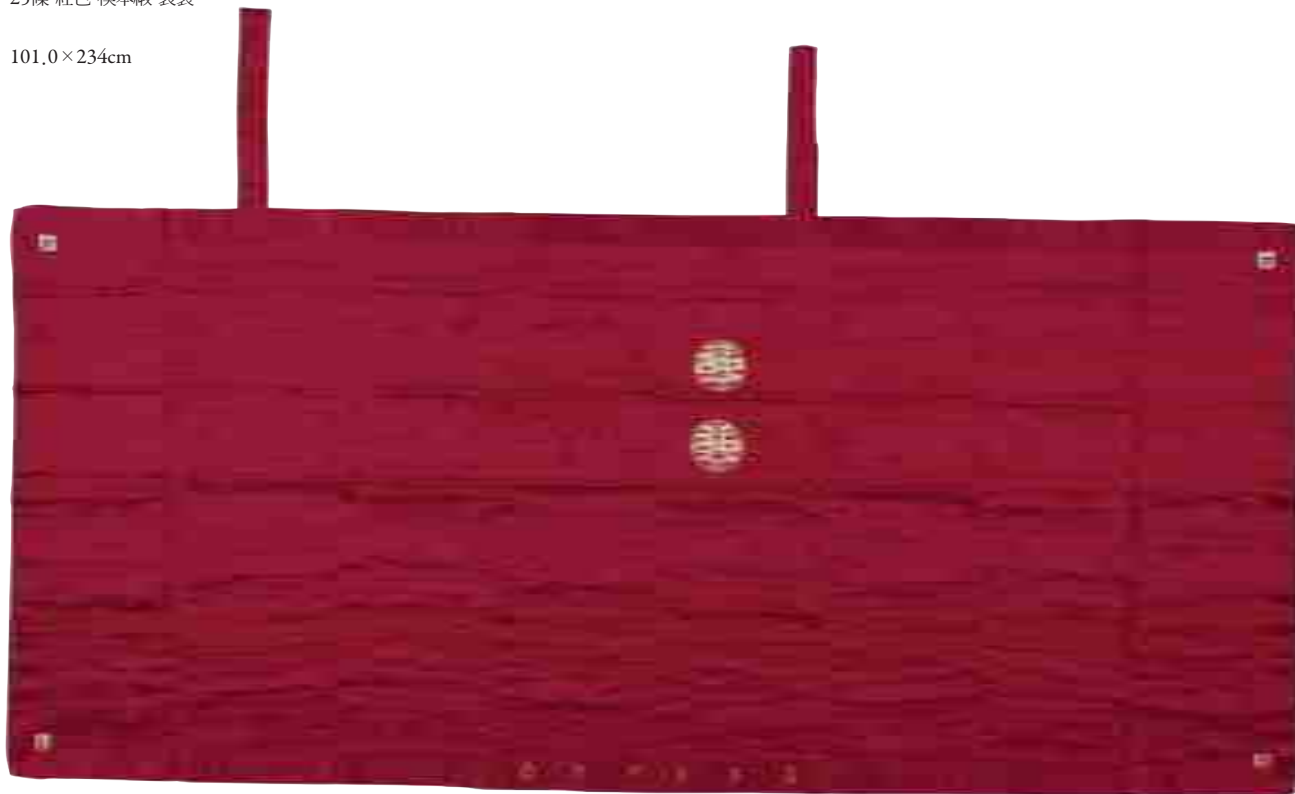


40-1

25조 홍색 모본단 가사

25條 紅色 模本緞 袈裟

101.0×23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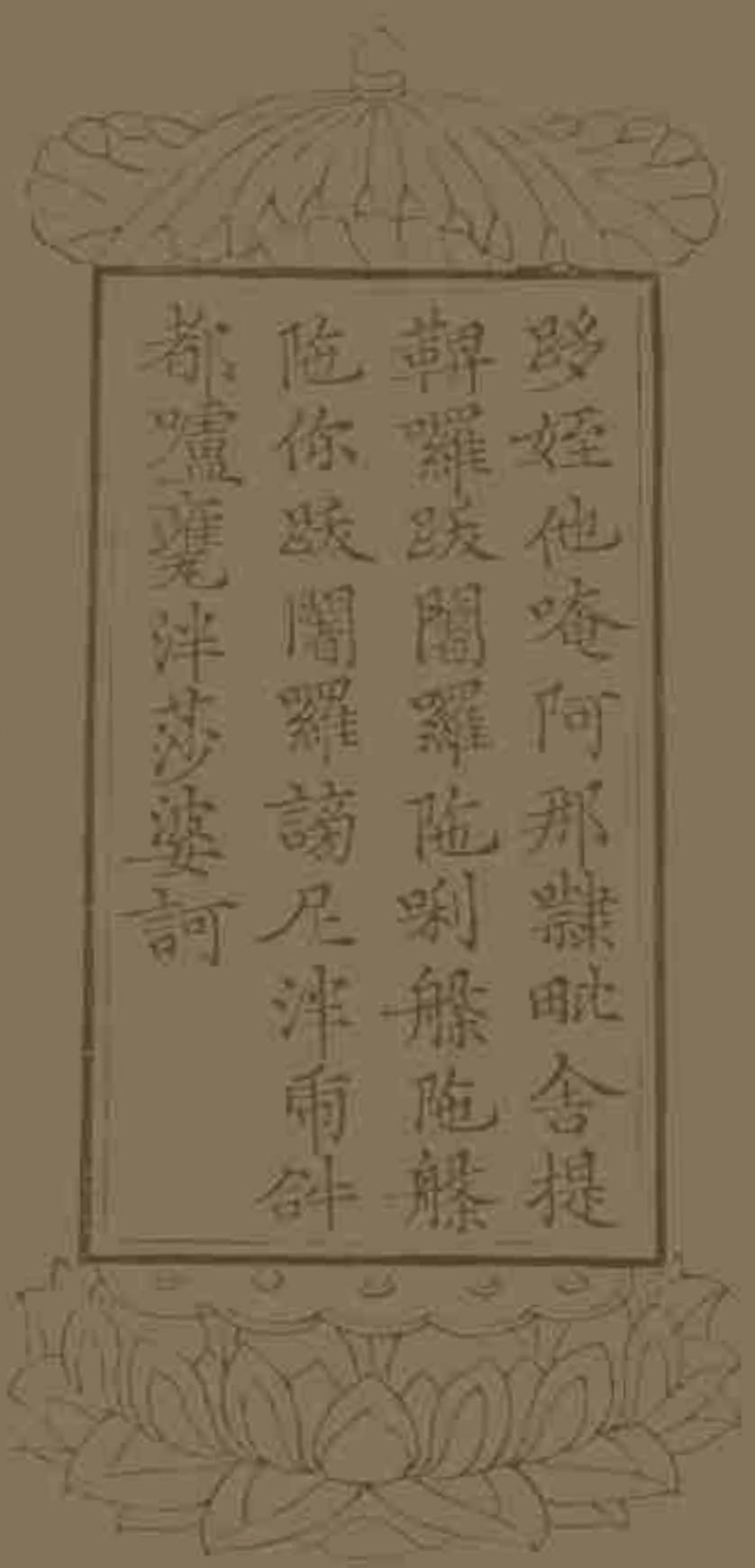
40-2  
21조 금직 금란가사  
21條 金織 金欄袈裟  
109,7×205,4cm



40-3  
100조 담홍색 모시가사  
100條 淡紅色 毛施袈裟  
83,5×321,0cm

# 도판해설

大佛頂首楞嚴神呪



娑姪他 唵 阿 那 隸 毗 舍 提  
鞞 囉 跋 闍 囉 陀 唎 槃 陀 槃  
陀 你 跋 闍 囉 謗 尼 泮 雨 斛  
都 嚧 嚩 泮 莎 婆 訶

1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平昌 月精寺 八角九層石塔  
Octagonal Nine-story Stone Pagoda of Woljeongsa Temple, Pyeongchang  
고려(10세기) | 높이 19.28m | 국보 제48-1호

고려 초기에 건축된 탑으로 9층으로 된 8각형의 석탑이다. 고려시대가 되면 4각형 평면에서 벗어나 다각형의 다층 석탑이 우리나라 북쪽지방에서 유행하는데 월정사팔각구층석탑도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석탑이다.

탑의 전체 무게를 지탱하는 기단부(基壇部), 9층으로 된 탑신부(塔身部), 탑의 윗부분을 장식하는 상륜부(相輪部)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 탑신의 8면 가운데 4면에 있는 방형의 홈은 불상을 모셔두었던 불감(佛龕)인데 현재 불상은 없어진 상태이다. 지붕돌의 위로 가볍게 들린 귀퉁이에는 풍경(風磬)이 달려있고 탑을 장식하는 상륜부가 온전히 남아 있는데 아랫부분은 돌로, 윗부분은 금동으로 조성되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비례를 유지하고 있는 다각다층석탑의 대표작이다. 청동으로 만든 풍경과 금동으로 된 상륜부의 장엄(莊嚴)은 고려시대 금속 공예 기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2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사리장엄구  
月精寺 八角九層石塔 舍利莊嚴具  
Reliquaries from the Octagonal Nine-story Stone Pagoda of Woljeongsa Temple  
고려(10세기) | 보물 제1375호

1970년 10월 석탑의 해체 수리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종류의 사리구(舍利具)이다. 5층 옥개석 사리공에서 은제도금 여래입상 1구, 1층 탑신 원형 사리공에서 보자기에 싸인 원형의 청동외합과 동경 4개가 발견되었다. 청동외합 안에는 은제사리내함이 있었고, 그 속에 향나무로 입구를 막은 수정사리병과 사리 14과, 『전신사리경(全身舍利經)』, 금동사각향합, 비단자수향주머니 등이 있었다. 출토 유물들은 고려 초기 금속·섬유공예의 세련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2-1

은제도금여래입상  
銀製鍍金如來立像  
Gilt-silver standing Buddha  
높이 9.7cm

월정사팔각구층석탑 5층 지붕돌 윗면에 설치된 방형의 사리공(舍利孔)에서 발견된 불상으로 연꽃이 새겨진 4개의 작은 기둥이 있는 네모난 판 위에서 있고 불상이 움직이지 않도록 4개의 기둥을 세워 고정한 장치가 있다. 2단으로 된 연화좌에 서 있는데 연화좌의 상하와 광배에는 작은 구슬이 이어져 있는 페르시아에서 기원한 연주문(連珠文)이 표현되었다. 부처님 뒤에는 광명을 상징하는 몸 전체를 두르는 전신광배(全身光背)가 있는데 연꽃, 연주문, 화염문이 표현되어 있다. 입상의 머리에는 소라 모양의 곱슬거리는 나발(螺髮)이 큼직하게 표현되었고, 상호는 근엄하면서도 부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는 은은한 미소가 완만하게 묘사되었다.

2-2

방형수라향갑낭  
方形繡羅香匣囊  
Incense pouch made of silk  
6.0×5.7×1.0cm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청동사리외합에서 발견된 것으로 향갑을 넣었던 빈 주머니이다. 앞 뒷면에는 각각 1명씩의 동자가 연꽃 속에 둘러싸인 모습이 수놓아져 있다. 고려시대 천을 짜는 직조술과 수예(繡藝) 기법을 고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2-3

금동방형향갑  
金銅方形香匣  
Gilt-bronze rectangular incense casket  
4.35×4.1×0.6cm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청동사리외합에서 발견된 향갑으로 상하면에는 각기 2구씩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사천왕 4구가 새겨져 있다. 좌우 측면에는 꽃무늬와 두 보살상을 표현하였다. 바깥 테두리는 구슬이 이어진 연주문(連珠文)으로 마감되었고, 빈 바탕에는 물고기 비늘 같은 어자문(魚子文)이 촘촘히 배치되었다.

사방을 수호한다는 불교의 방위신인 사천왕이 앞뒤면에 두 명씩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데 모두 갑옷을 입고 검을 들고 있다. 바위로 된 대좌 위에서 있는데 두 발은 바깥쪽을 향하고 있다.

3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平昌 月精寺 石造菩薩坐像  
Stone Seated Bodhisattva of Woljeongsa Temple, Pyeongchang  
고려 | 높이 1.8m | 국보 제48-2호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을 향해 오른쪽 무릎을 꿇고 원다리를 세워 탑에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 보살상으로 머리에는 높다란 관을 쓰고 있으며 가름하면서도 복스러운 만면에 미소가 어려 있다. 머리칼은 옆으로 길게 늘어져 어깨를 덮고 있고, 목에는 아주 뚜렷한 삼도(三道)가 표현되어 있다. 목걸이는 매우 섬세하고 곱게 조각되어 가슴까지 늘어지게 장식되어 있다.

고려시대 화엄종 계통 사원에서 만든 보살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며, 당대 불교사상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4

평창 상원사 중창권선문  
平昌 上院寺 重創勸善文  
Document of Sangwonsa Temple, Pyeongchang  
조선(1464년) | 내고 30.0×12.0cm | 국보 제292호

세조의 왕사인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 등이 왕의 만수무강을 빌기 위하여 상원사의 중창을 발원하니, 이에 세조가 채색·쌀·무명·베를 하사한다는 취지를 밝힌 글로 국왕의 어첩과 신료의 권선문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책은 한문으로만 되어있는데 신미(信眉) 등이 쓴 글에는 신미(信眉)·학열(學悅)·학조(學祖) 등이 수결(手決)하고, 세조가 쓴 글에는 세조와 왕세자의 수결과 인기(印記), 효령대군(孝寧大君) 이하 여러 종실과 신하들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다른 한 책은 권선문을 한문으로 쓰고 한글언해본을 붙였으며 세조와 세자의 수결과 인기(印記), 왕비·세자빈·공주 및 외명부(外命婦)의 기명(記名)과 인기가 이어지고 표지에는 '어첩(御牒)'이라고 쓰여 있다. 당시의 왕비, 세자, 세자빈, 종친과 내외명부, 중앙과 지방 전·현직 관료들이 시주자로 기록되어 있어 왕실 주도로 발원한 기록이며 당시 승려들과 세조와의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사료(史料)이다. 또한 초기 한글 서체 및 표기법과 조선시대 수결 연구 자료로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5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平昌 上院寺 木造文殊童子坐像  
Wooden Seated Child Manjusri of Sangwonsa Temple, Pyeongchang

조선(1466년) | 높이 98.0cm | 국보 제221호

1466년에 세조의 딸인 의숙공주(懿淑公主)와 그녀의 남편인 정현조(鄭顯祖) 부부의 발원으로 조성된 상으로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상은 양쪽으로 묶은 쌍상투 머리를 하고 있으며 원만한 상호에는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설법인을 취한 수인과 편안하게 앉아 노출시킨 오른발에 발톱까지 표현하고 있다. 특히 자연스러운 두 손의 위치와 사실적인 손가락의 표현, 부드러운 옷주름선 등은 당대 최고의 왕실에서 발원한 불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상원사 문수동자상은 고려후기의 단아하고 안정감 있는 불상 양식을 계승한 조선 초기 왕실 발원의 세련된 불교조각으로 현재 상원사에 봉안되어 있다.

6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平昌 上院寺 木造文殊童子坐像 腹藏遺物  
Excavated Relics from the Wooden Seated Child Manjusri of Sangwonsa Temple, Pyeongchang

보물 제793호

6-1

의숙공주발원문  
懿淑公主發願文  
Balwonmun or the letter of aspiration by Princess Uisuk (the second daughter of King Sejo)

조선(1466년) | 31.5×24.0cm

문수동자상 복장 발원문 중 하나로 청색 계통의 명주에 붉은 글자가 10행으로 쓰여져 있다. 발원문에는 세조의 둘째딸인 의숙공주(懿淑公主, 1442~1477)와 그의 남편 정현조(鄭顯祖, 1440~1504)가 당시 임금인 세조 및 왕실의 수복(壽福)을 기원하고 부부의 득남(得男)을 위해서 석가여래·약사여래·아미타불·문수보살·보현보살·미륵보살·관음보살·지장보살·16나한·제석천상을 조성해 오대산 문수사에 봉안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6-2

중수발원문  
重修發願文  
Letter of aspiration for restoration

조선(1599년) | 34.6×29.1cm

1599년에 지운(智雲)과 보명(普明) 스님이 발원해서 여러 존상을 중수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발원문으로 녹색계통의 명주에 붉은 글자가 14행으로 쓰여져 있다.

발원문에 의하면 중수 대상은 동자문수상과 노문수상(老文殊像) 각 1존, 나한상 16존, 화엄회도·서방회도·원각회도·미타회도·비로회도 각 1점, 영산회도 2점, 달마대사와 나옹화상 진영 등이다. 또한 당시 불사의 소임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증명은 일학(一學) 스님이 맡았고, 각 존상의 중수는 석준(釋俊)과 원오(元悟) 스님이 담당했으며, 발원문은 학명(學明) 스님이 지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상원사 문수동자상 중수 사실은 1984년에 발견된 복장 유물 가운데 1466년 조성 이후에 추가로 납입된 전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6-3

황초폭자  
黃梢幅子  
Yellow wrapping cloth for the Goryeo period

57.0×58.0cm

후령통(候鈴筒)을 감싸는데 사용된 황색 비단으로 만든 네모난 천으로 중앙에는 범자 다라니가 배치되었고 그 주변의 세 면에는 불상과 보탑 등이 찍혀 있다. 크기는 사방 1척5촌 정도인데 불복장의 의식집인 『조상경(造像經)』의례에 따른 것이다.

6-4

후령통  
候鈴筒  
Huryeongtong (a reliquary for votive objects)

높이 10.5cm | 지름 4.0cm

불상이나 불화 등을 조성할 때 함께 넣는 금·은·철보 등의 보물과 오곡(五穀)·오향(五香)·오약(五藥) 등 복장(腹藏)을 넣는 통이다. 문수동자상의 후령통은 둥근 형태로 뚜껑이 따로 만들어졌다.

6-5

백색수정보병  
白色水晶寶瓶  
Baksack Sujeong Bobycong (a crystal holy water bottle)

지름 4.5cm

상원사 문수동자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흰색의 수정구이다. 중심부에는 사리를 납입하는 장치인 사리공(舍利孔)이 있으며 불복장의 의식집인 『조상경(造像經)』에 나오는 복장 의례에 따른 것이다.

6-6

무공수정주  
無孔水晶珠  
Mugong Sujeongju (a crystal ball without holes)

높이 3.3cm | 지름 3.7cm

상원사 문수동자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구멍이 없는 수정 구슬이다. 불복장의 의식집인 『조상경(造像經)』에 의하면 '무공수정주일위심주야(無孔水晶珠一爲心珠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6-7

사리  
舍利  
Sarira (sacred relics)

지름 0.2cm

문수동자상 복장에 납입되어 있던 사리로 총 3과이다. 사리는 부처님의 유골인 진신사리(眞身舍利)와 불경을 비롯한 불상·옷·발우 등의 법신사리(法身舍利)로 구분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자장율사(慈莊律師)께서 중국에서 사리를 처음 들여온 이후 사리에 대한 예배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조선조기 왕실을 중심으로 진신사리에 대한 신앙이 매우 성행했는데, 상원사 문수동자상의 복장 사리는 불탑 뿐만 아니라 불상에도 사리가 납입되었던 것으로 당시의 사리 신앙의 유행과 관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6-8

화주

火珠

Hwaju (a flint ball)

지름 0,9cm

문수동자상에서 발견된 복장물로 일명 화경(火鏡)이라고도 한다. 햇볕에 비추면 불을 일으키는 구슬이다.

6-9

대방광불화엄경 권28

大方廣佛華嚴經 卷28

Avatamsaka Sutra Volume 28

고려(13세기 중반) | 내고 23,2cm

문수동자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경전이다.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경』이라고 부르며 ‘대방광’은 대승 곧 진리를 의미하고 ‘불화엄’은 아름다운 연꽃으로 보살이 여러 가지 꽃으로 부처님의 연화장 세계를 장식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화엄종의 근본 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에 큰 영향을 준 경전이며 스님들의 교육기관인 강원(강원)의 최고 과정인 대교과에서 강의 교재로 사용되어 왔다. 현재 한역본으로는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가 번역한 진본(晉本, 418~420) 60화엄, 실차난타(實叉難陀) 번역의 주본(周本, 695~699) 80화엄, 반야(般若) 번역의 정원본(貞元本, 795~798) 40화엄 등 세 종류가 있다.

상원사 문수동자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화엄경』은 1098년에 간행된 판본과 유사하지만 두루마리 형태가 아닌 접힌 상태인 접장본(摺裝本)으로, 13세기 이후에 다시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된다.

6-10

세소자본 묘법연화경 권1~7

細小字本 妙法蓮華經 卷1~7

Lotus Sutra printed in small, fine letters Volume 1 to 7

조선(1404년) | 7권 1첩 | 목판본 | 18,5×8,5cm

태종 4년(1404)에 용담(龍潭) 스님과 혜거(惠居) 스님의 발원으로 간행된 것으로 조선 정종 원년(1399)에 간행된 소자본과 비교해 한 행에 6자 이상이 추가되어 글자의 크기가 더욱 작아진 판본이다. 상원사 문수동자상 복장에서 발견된 경전 가운데 유일하게 표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쪽물을 들인 감지(紺紙)로 표지에는 『묘법연화경합부(妙法蓮華經合部)』라고 금니(金泥)로 쓰여 있다. 경전 앞 부분에는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변상도(變相圖)가 있다.

이 판본은 판각의 세김이 비교적 정교하며 얇은 종이에 인쇄해 『법화경』 7권을 1첩으로 접게 처리한 접장(摺裝)한 것으로 독송용으로 만든 것이다.

6-11

백지묵서제진언

白紙墨書諸眞言

Backjimukseojineon (a transcription of Buddhist sermons)

조선(1463년) | 41,8×679,3cm

상원사 문수동자상 복장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로 66개의 진언이 범자(梵字)로 필사된 것이다. 두루마리 끝에는 붉은 글자로 세조 9년(1463)에 선종 선사 내호(乃浩)가 썼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앞부분과 마지막 여백 부분이 잘려져 결실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사십이수진언(四十二手眞言)을 포함하여 오대진언의 내용이 모두 실려 있고 후반부에는 19개의 짧은 진언과 문수진언이 수록되어 있다.

종이는 양질의 중국에서 제작한 종이를 사용했는데 당시 국내의 종이 사정이 좋지 않았던 때이므로 특별히 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6-12

오대진언

五大眞言

Odacjineon (Five Dharani Sutras)

조선(1485년) | 목판본 | 18,1×12,2cm

밀교의 경전인 다섯 종류의 진언이 범자(梵字), 한글, 한자순으로 함께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책 내에는 관세음보살 사십이수(四十二手) 진언이 나오는데, 상단에는 지물(持物)과 수인(手印)이 함께 표현된 수인도(手印圖), 하단에는 그에 대한 용례의 해설과 다라니 등이 실려 있으며 각 다라니에는 범자·한글·한문의 순서로 다라니가 수록되어 있다.

오대진언은 성종 16년(1485)에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1437~1504)의 명에 따라 일반 백성이 진언을 쉽게 익혀 암송하도록 하기 위해 간행된 것이다. 오대진언 말미에는 오대진언의 영험에 관한 내용을 다라니 별로 뽑아 정리한 『영험약초(靈驗藥抄)』를 실고, 진언집을 간행한 이유를 기록한 학조 스님의 발문(跋文)과 『영험약초』를 인쇄한 것이 함께 묶여 있다. 이 판본은 인수대비가 인쇄한 다른 경전과 달리 중국에서 진언집을 구해 한글 음역을 덧붙여 새로 판각한 진언집이다.

6-13

소자본 묘법연화경 권1~7

小字本 妙法蓮華經 卷1~7

Lotus Sutra printed in small letters Volume 1 to 7

조선(1399년) | 7권 2책 | 목판본 | 18,6×12,5cm

가지고 다니면서 독경 또는 열람이 쉽도록 축소해서 간행한 『법화경』 소자본(小字本)이다. 해린(海麟) 스님이 정천익(鄭天益)과 이양(李穰)의 시주금으로 정종 1년(1399)에 판각(板刻)했으며, 이와 같은 판본으로 우왕 9년(1383)에 평양의 법흥산 백련암에서 간행된 판본이 현존하고 있다. 경전의 끝에는 1399년에 남재(南在)가 쓴 발문(跋文)이 수록되어 있어 간행된 연도를 확인할 수 있다.

6-14

을해자본 묘법연화경 권6~7

乙亥字本 妙法蓮華經 卷6~7

Lotus Sutra printed with the woodblocks from the Year of the Pig Volume 6 to 7

조선(1466년 이전) | 2권 1책 | 금속활자본 | 27,2×19,6cm

문수동자상 복장에서 발견된 『법화경』으로 세조 때 금속활자인 을해자(乙亥字)로 인쇄한 것이다.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거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쇄된 후 곧바로 복장(腹藏)에 넣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 복장본은 전체 7권 가운데 권 6~7 1책에 해당되며, 특히 권 6이 시작되는 제목 위에 ‘교정(校正)’ 도장이 찍혀 있다. 이 판본은 을해자본 계통의 모본(母本)으로 이후 여러 사찰에서 다시 판각되어 간행된 바가 있다.

6-15

화암사판 묘법연화경 권1~3

華岩寺板 妙法蓮華經 卷1~3

Lotus Sutra printed with Hwaamsa Temple woodblocks  
Volume 1 to 3

조선(1433년) | 3권 1책 | 목판본 | 20.8×13.4cm

『법화경』 7권 가운데 3권 1책의 목판본이다. 이 경전은 성달생(成達生, 1376~1444)이 판본의 글씨를 썼는데 그는 1405년에 전라도 고산 안심사(安心寺)에서 간행된 판본과 1422년에 대자암(大慈庵)에서 간행된 판본 등도 쓴 적이 있어 『법화경』 간행과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그가 쓴 법화경판은 조선시대 전국의 사찰에서 여러 차례 복각(覆刻)이 이루어져 주요한 한 계통을 형성하고 있다.

경전의 여러 곳에는 구결이 묵서(墨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하다가 복장에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권3 끝에 ‘황진손서(黃振孫書)’라는 글자가 있어 이 『법화경』의 저본은 황진손이 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6-16

희방사판 묘법연화경 권5~7

喜方寺板 妙法蓮華經 卷5~7

Lotus Sutra printed with Huibangsa Temple woodblocks Volume 5 to 7

조선(1561년) | 3권 1책 | 목판본 | 20.2×13.5cm

성달생(成達生, 1376~1444)이 쓴 것을 명종 16년(1561)에 복각(覆刻)한 목판본 『법화경』 7권 가운데 제5~7권이다. 법화경 28품 가운데 제14품 안락행품(安樂行品)에서 제28품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까지 실려 있다.

이 판본은 1442년에 본문을 새기고 1443년에 발문을 새긴 화암사판에서 정경부인 윤씨, 성달생의 외손자들인 한계희(韓繼禧, 1423~1482) 형제에 의해 1477년에 인출된 판을 저본으로 해서 새긴 것이다. 이 판본은 1477년에 인출한 것을 바탕으로 명종 16년(1561)에 경상도 풍기 소백산 절방사(叱方寺, 희방사의 다른 명칭)에서 번각(飜刻)한 것으로, 1599년 증수 때 복장으로 추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6-17

을유자본 원각경언해 상2-2~3

乙酉字本 圓覺經諺解 上2-2~3

Korean Annotation of The Complete Enlightenment Sutra printed with the woodblocks from the Year of the Rooster Book 2 Volume 2 to 3

조선(1465년) | 2권 1책 | 금속활자본 | 19.0×13.3cm

당나라 종밀(宗密)이 『원각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쓴 것으로 불타다라(佛陀多羅)가 한역한 『원각경』에 구결(口訣)을 붙여 1465년에 을유자(乙酉字)로 인쇄한 12권 가운데 2권 1책이다. 세조가 1465년에 원각사(圓覺寺)를 준공하고 난 뒤 효령대군(孝寧大君, 1396~1486)에게 지시해 교정(校正)한 『원각경(圓覺經)』을 정난종(鄭蘭宗, 1433~1489)이 쓴 글씨를 자본(字本)으로 해 만든 것이다.

상원사 문수동자상 복장본은 세조 11년(1465)에 을유자로 인출한 활자본과 1564년에 지리산 신흥사(神興寺)에서 판각한 목판본 2종이 소장되어 있다. 을유자 금속활자는 『원각경』 등 불경을 간행할 목적으로 세조가 주성(鑄成)했기 때문에 당시 유학자들의 강한 반대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못하고 1484년(성종 5) 갑진자(甲辰字) 주조 때 이를 녹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전하는 것이 많지 않아 귀중본으로 평가되고 있다.

6-18

신흥사판 원각경 권상·중·하

神興寺板 圓覺經 卷上·中·下

Complete Enlightenment Sutra printed with Sinheungs Temple woodblocks

조선(1564년) | 3권 1책 | 목판본 | 18.3×13.3cm

함허당(涵虛堂) 득통(得通)이 해석한 『원각경』을 1564년에 번각(飜刻)한 것이다. 즉 이 판본은 강희안(姜希顔)이 필사해 간행한 간경도감본(干經都監本)을 저본으로 해 다시 새긴 것이다. 간경도감본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판각되었다. 그러나 간행 시기가 늦은 것으로 보아 상원사 문수동자상의 증수 때로 추가로 납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6-19

영제암판 육경합부

永濟庵板 六經合部

Six Sutras printed with Yeongjeam Hermitage woodblocks

조선(1472년) | 1권 1책 | 목판본 | 19.5×13.5cm

세종 22년(1440)에 영제암(永濟庵)에서 새긴 목판을 성종 3년(1472)에 인경한 목판본이다. 경전 끝에 1434년(세종 16)에 주자소에서 만든 동활자인 갑인소자(甲寅小字)로 찍은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의 발문이 있어 인수대비에 의해 대대적으로 인출된 불경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6-20

중대사판 육경합부

中臺寺板 六經合部

Six Sutras printed with Jungdaesa Temple woodblocks

조선(1460년) | 1권 1책 | 목판본 | 19.5×12.5cm

1424년에 간행된 전라도 안심사 판본을 진안(鎭安)의 중대사(中臺寺)에서 복각(覆刻)한 것이다. 조선 초에 전북 진안의 중대사에서는 『부모은중경』을 비롯해 여러 불경을 간행했는데, 이 육경합부도 이 때 함께 판각된 것으로 보인다.

6-21

화암사판 육경합부

花岩寺板 六經合部

Six Sutras printed with Hwaamsa Temple woodblocks

조선(1488년) | 1권 1책 | 목판본 | 19.0×13.0cm

1424년에 간행된 전라도 고산의 안심사(安心寺) 판본을 복각한 것이다. 『관세음보살예문(觀世音菩薩禮文)』 말미에 성달생(成達生)이 평양부윤으로 있을 때 발문을 써 주었다는 등 1424년에 간행할 때의 발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6-22

명주적삼

明紬單衫

Summer jacket made of silk

길이 72cm

윗도리에 입은 홑옷으로 단삼(單衫)이라고도 한다. 명주는 쟁쳐서 바느질한 것으로 섬세하고 치밀하다. 옷고름은 가늘고 짧으며 저고리의 길이가 엉덩이 부분을 가릴 정도로 긴 것이 특징이다.

명주 적삼은 오염물로 얼룩져 있는데 세조가 앓던 피부병과 관련해 「상원사중창권선문(上院寺重創勸善文)」에 세조가 상원사의 중창을 위해 어의를

내어 놓았다는 내용이 있어 세조의 병을 치유하고자 그가 입었던 어의(御衣)를 복장으로 넣은 것이라고 추정하는 의견도 있다.

6-23

생명주적삼

生明紬單衫

Summer jacket made of unprocessed silk

길이 65.0cm

고운 생명주로 만든 적삼으로, 앞뒤 소매와 뒷길에 범어(梵語)로 된 천수다라니판(千手多羅尼板)이 6개 찍혀 있다. 불상의 복장물로 입던 옷을 시주한 것은 신체와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의복을 시주자의 몸을 상징하는 공양물로 넣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저고리의 앞섶 안쪽에 ‘노씨부인(魯氏婦人)’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저고리를 시주한 여인으로 추정되며 상원사 문수동자상의 조성과 관계된 인물로 보인다.

7

세조대의 회장저고리

世祖代 回裝赤古里

Jacket with decorative patches on the collar, front opening, cuffs and shoulders from the King Sejo period

조선(1460년대 추정) | 길이 52.4cm 폭 34.0cm |  
상원사문수동자상복장 | 국가민속문화재 제219호

깃과 끝동, 섶과 옷고름 등에 짙은 배색을 한 회장저고리로 1466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원사문수동자상에서 발견된 것이다.

저고리의 뒷 중심선 우측에는 ‘장씨소대(長氏小對)’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 ‘장씨의 저고리’라는 뜻이다. 조선시대에는 저고리를 ‘적고리(赤古里)’, ‘소오자(小襖子)’, ‘포오(袍襖)’, ‘삼아(衫兒)’, ‘소대(小對)’, ‘적삼(的衫)’ 등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보관되고 있는 저고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조선 초기 저고리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8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平昌 上院寺 木造文殊菩薩坐像・腹藏遺物

Wooden Seated Manjusri Bodhisattva and Excavated Relics of Sangwonsa Temple, Pyeongchang

보물 제1811호

상원사 문수전의 불감(佛龕) 안에는 1466년에 조성된 국보 제221호인 목조문수동자좌상과 1구의 또다른 목조문수보살좌상이 모셔져 있다. 문수보살상은 1661년 진여원의 세 번째 중창 때 조성된 것으로 복장에서 보살상의 조성 및 중수 과정을 알 수 있는 발원문과 보살상의 심장에 해당하는 후령통, 법사리로 납입된 경전류 등 다양한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다.

8-1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平昌 上院寺 木造文殊菩薩坐像

Wooden Seated Manjusri Bodhisattva of Sangwonsa Temple, Pyeongchang

조선(1661년) | 높이 117.0cm

1661년 조성된 문수보살상으로 상원사 문수전에 봉안되어 있다. 법의가 양쪽 어깨를 덮고 있는 통견식의 착의(着依) 형식에 가부좌를 하고 있다.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있고 상체가 긴 편이지만 무게감이 느껴지는 하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준다. 눈두덩이와 양볼, 목, 가슴, 법의 위로 드러나는 복부 등은 양감있게 표현 되었다. 동판으로 만든 보관은 얼굴

에 비해 비교적 큰 편으로 봉황, 꽃, 구름, 화염 보주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정수리 위에는 별재로 만들어진 긴 보계(寶髻)가 있으며, 보관을 씌우기 위하여 머리 뒷부분을 상당히 깎은 것이 선명하게 들어온다. 머리 뒷부분과 옆부분의 머리카락은 빗으로 빗은 듯이 세로로 가지런히 표현하였는데, 양쪽으로 나누어진 머리 가닥은 양쪽 귀를 가로 질러 어깨 위로 흘러 내리고 있다.

8-2

후령통

候鈴筒

Huryeongtong (a reliquary for votive objects)

높이 13.0cm

복장에서 발견된 후령통으로 은제로 만들었으며 형태는 원통형이다. 뚜껑의 윗면은 나선형으로 홈을 판 긴 후혈을 부착하였고, 안쪽에는 붉은색으로 진심종자(眞心種子)를 썼다. 몸통의 바깥에는 별도로 만든 사방경을 오색실로 고정하였다. 후령통 내에는 팔엽개(八葉蓋)를 비롯하여 방위별로 각종 상징물을 담은 오보병을 안립하였다.

8-3

발원문 일괄

發願文 一括

Collection of balwonmun or letters of aspiration that the statue of Manjusri be made in 1661 (2nd year of the reign of King Hyeonjong of Joseon)

문수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환적당 의천(義天)이 쓴 9매의 발원문으로 상원사 세 번째 중창과 문수보살의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발원문 중에서 1661년(현종 2)에 의천이 쓴 발원문에 따르면 문수보살상은 학문(學文)스님의 화주(化主)로, 수조각승 회감(懷鑑)을 비롯해 세정(洗淨), 신언(神彦), 의현(儀玄), 사길(士吉) 등 5인에 의해 완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대시주자로 는 상궁 변묘련(邊妙蓮), 청신거사(淸信居士) 김귀원(金歸原) 등이 참여했다.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은 조선 전기에는 오대산을 중심으로 왕실에서 주도한 불사가 이루어졌다면, 17세기에는 승려와 신도 위주로 시주 계층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9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전적

平昌 上院寺 木造文殊菩薩坐像 腹藏典籍

Excavated Documents from the Wooden Seated Manjusri Bodhisattva of Sangwonsa Temple, Pyeongchang

보물 제1812호

상원사 문수보살좌상에서 발견된 복장 전적은 12종이고 다라니류는 11종이다. 이 가운데 보물 제1812호로 지정된 복장전적은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白紙墨書金剛般若波羅蜜經)』과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6으로 2종이다.

9-1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

白紙墨書金剛般若波羅蜜經

Vajracchedika Prajnaparamita Sutra (The Diamond Sutra) in ink on white paper

여말 선초(14세기 추정) | 2권 1첩 | 필사본 | 39.3×12.6cm

고려 말 조선초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지에 묵서로 쓰여진 사경이다. 앞면에는 『금강경(金剛經)』, 뒷면에는 『대방광불화엄경입불사의혜탈경계 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 수록되어 있다. 앞면 『금강경』의 권두에는 표제(表題) 대신에 1661년(현종 2)에 의



천(義天)이 기록한 글이 있어 문수보살상 복장물로 납입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권말에는 사성기(寫成記)가 없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그 품격이 정교하고, 사경체(寫經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말 조선 초기의 사경으로 추정된다.

9-2

묘법연화경 권6

妙法蓮華經 卷6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Volume 6

여말 선초(14세기 추정) | 1권 1책 | 목판본 | 32.0×16.0cm

1240년(고종 24)에 판각된 목판본을 여말선초(麗末鮮初)에 후쇄(後刷)한 판본으로 추정된다. 권 6은 「제18 수희공덕품(第十八隨喜功德品)」부터 「제23 약왕보살본사품(第二十三藥王菩薩本事品)」까지 모두 5품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 표지는 없어졌지만 경전 뒤에는 감색(紺色)이 남아 있어 원래는 장경(裝訂)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서와 동일한 판본은 권7로 보물 제 692-1호, 제692-2호, 제977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권말에는 1240년에 최이(崔怡)가 쓴 기록이 있어 경전의 간행 과정을 추정할 수 있다.

10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유물

平昌 上院寺 木造文殊菩薩坐像 腹藏遺物

Excavated Relics from the Wooden Seated Manjusri Bodhisattva of Sangwonsa Temple, Pyeongchang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70호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과 복장유물 중 후령통과 발원문 9건은 보물 제 1811호로 지정되었고, 복장 전적 가운데 『백지묵서금강반야금강경』과 『묘법연화경』 권6은 보물 제1812호로 지정되었다. 보물 제1812호로 지정된 복장 전적 외의 자료는 2015년에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70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문수보살좌상의 조성 연대(1661년)로 미루어 보아 복장 전적은 임란 이전의 판본이 많고 필사본 역시 1661년 불상 조성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어 조선시대의 불복장(佛腹藏) 연구에 중요한 유물이다.

10-1

전적류 일괄

典籍類 一括

Collection of records

10-2

다라니 일괄 ①

陀羅尼 一括 ①

Collection of dharanies or mantras

10-3

다라니 일괄 ②

陀羅尼 一括 ②

Collection of dharanies or mantras

11

평창 월정사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平昌 月精寺 中臺 獅子庵 木造毘盧遮那佛坐像・服藏遺物

Wooden Seated Vairochana Buddha and Excavated Relics in Sajaam

Heritage in Jungdae or Biro-bong Peak of Woljeongsa Temple,

Pyeongchang

11-1

평창 월정사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平昌 月精寺 中臺 獅子庵 木造毘盧遮那佛坐像

Wooden Seated Vairochana Buddha in Sajaam Heritage in Jungdae or Biro-bong Peak of Woljeongsa Temple, Pyeongchang

조선 후기 | 높이 38cm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7호

1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으로 오대산 중대 사자암의 주존 불인 비로자나불상이다. 비로자나불은 중생과 부처님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상징하는 왼손의 검지를 오른손 주먹으로 감싼 지권인(智拳印)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지권인의 변형인 권인(拳印)을 한 경우가 많은데, 중대 사자암의 비로자나불상 역시 오른손을 왼손이 감싼 권인을 취하고 있다.

11-2

중수발원문

重修發願文

Balwonmun or a letter of aspiration for restoration

조선(1894년) | 30.0×36.0cm

복장에서 발견된 원문(願文)으로 광서 20년인 1894년에 10월에 시작해 16일에 마쳐 오대산 월정사 중대 향각(香閣)에 봉안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때 중수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원문은 개금 불사의 소임 담당자를 기록한 연화질(緣化秩)과 시주자 명단인 시주질(施主秩)로 구성되어 있다.

1894년 개금 불사에 동참한 수화승은 보암공법(普庵肯法)이며 혜산축연(惠山竺衍), 범화윤익(梵化潤益), 창조(昌照), 성민(性敏), 운조(雲照) 등이 보조화승으로 동참하였다.

11-3

개금발원문

改金發願文

Balwonmun or a letter of aspiration for gilding the Buddha statue with gold

조선(1908년) | 50.0×29.0cm

1908년 봉안된 발원문으로 중대 사자암 비로자나불상과 함께 총 여덟 구의 불보살상을 개금해 봉안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즉 중대 사자암 비로자나불상 1위, 상원사 승당(僧堂) 석가모니불 1위, 상원사 대웅전 아미타불 1위, 관세음보살 1위, 문수보살 1위, 문수동자 1위, 동대(東臺) 관세음보살 1위, 대사 동별당(大寺東別堂) 1위 등이 대상이다.

개금 발원문은 불사를 담당한 인물들을 기록한 연화소(緣化所)와 시주자를 기록한 시주질(施主秩)로 구성되어 있다. 수화승은 호봉성욱(虎峯性煜)이며 풍곡의법(豊谷義法), 운담의하(雲潭宜荷), 영은법안(寧隱法眼), 도엽(道燁), 신사(信士) 혜산(惠山) 등 총 6명이 보조화승으로 동참하였다. 시주자로는 상궁 4명과 부부로 추정되는 한증장(韓增長)과 최대혜심(崔大慧心) 등이 기록되어 있다. 오대산 중대 사자암은 태조 이성계의 원찰이었기 때문에 상궁들의 시주를 통해 조선 말기까지 왕실의 후원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1~4

범서

梵書

Buddhist scriptures in Sanskrit

조선(1456년) | 27.0×40.0cm

북장에서 발견된 범서로 1456년에 신미(信眉)대사와 학열(學悅) 대사가 발원해 판각한 다라니이다. 시주자는 세종의 다섯째 왕자인 광평대군(廣平大君, 1425~1444)의 부인 영가부부인(永嘉府夫人) 평산 신씨(平山申氏)와 그의 외아들 영순군 이부(李漣, 1444~1470)이다.

12

월정사 북대 고운암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 유물

月精寺 北臺 孤雲庵 木造釋迦如來坐像 · 腹藏遺物

Wooden Seated Statue of Buddha and Excavated Relics in Gounam Hermitage in the North of Woljeongsa Temple

조선(1710년)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1호

12-1

월정사 북대 고운암 목조석가여래좌상

月精寺 北臺 孤雲庵 木造釋迦如來坐像

Wooden Seated Statue of Buddha in Gounam Hermitage in the North of Woljeongsa Temple

높이 43.5cm

1710년에 조성된 불상으로 수조각승 광습(廣習)이 찬홀(槩屹)·서희(瑞熙)와 함께 조성한 것이다. 이 불상은 석가여래의 성도를 의미하는 향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짓고 있으며, 머리에는 살상투인 육계(肉髻)의 표현이 분명하지 않다. 크고 뾰족한 소라모양의 나발(螺髮)이 부착되어 있고 머리 중앙에는 반달형의 중간계주(中央髻珠)가, 머리 정상에는 정상계주(頂上髻珠)가 표현되어 있다.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앉아 있기 때문에 상체를 약간 구부린 듯한 인상을 준다. 불의(佛衣)는 오른쪽 어깨 위에 살짝 걸쳐져서 팔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스타일은 일찍부터 중국 동황 지역에서 유행한 양식이다.

12~2

복장유물 일괄

服藏遺物 一括

Collection of excavated relics in Gounam Hermitage in the North of Woljeongsa Temple

석가여래좌상에서는 복장 유물로 1710년에 불상과 함께 조성된 후령통과 발원문을 비롯해 1908년과 1980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개금 중수기 등이 발견되었다.

12~3

후령통

候鈴筒

Huryeongtong (a reliquary for votive objects)

높이 6.2cm | 지름 3.5cm

석가여래좌상의 복장물로 원통형의 금속으로 만든 후령통이다. 후령통 안에는 청·홍·백·녹·황색 천의 오보병(五寶瓶)이 각각 오색실에 감겨 있으며, 오색실은 모아져 팔뚝으로 된 연화문 덮개 및 후령통 뚜껑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들은 녹색폭자에 싸인 채로 발견되었다.

13

평창 월정사 북대 고운암 목조미륵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平昌 月精寺 北臺 孤雲庵 木造彌勒菩薩坐像 · 服藏遺物

Wooden Seated Statue of Buddha and Excavated Relics in Gounam Hermitage in the North of Woljeongsa Temple, Pyeongchang

13-1

평창 월정사 북대 고운암 목조미륵보살좌상

平昌 月精寺 北臺 孤雲庵 木造彌勒菩薩坐像

Wooden Seated Statue of Buddha in Gounam Hermitage in the North of Woljeongsa Temple, Pyeongchang

조선(1710) | 높이 43.5cm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9호

북대 고운암에 봉안되었던 미륵보살상으로 1710년(숙종 36)에 북대 고운암 목조석가여래좌상의 좌형시로 조성되었으며 1908년에 개금 중수되었다. 북장에서 발견된 조성 발원문을 통해 존명이 미륵보살이고 조각승은 광습(光習)·찬홀(槩屹)·서희(瑞熙) 등 3인으로 밝혀졌다.

이 미륵보살상의 방형에 가까운 얼굴,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지 않는 평평한 가슴, 두터운 법의의 표현은 18세기 불교조각의 특징이다. 제작 연도, 봉안 사찰, 조각승 등을 알 수 있는 조성 발원문과 개금 중수문 등 복장 유물이 발견되어 조선후기의 불교조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13~2

복장유물 일괄

服藏遺物 一括

Collection of excavated relics

복장 유물로는 비단에 싸인 원통형의 후령통을 비롯해 주서(朱書)와 묵서(墨書)로 쓰인 다라니(陀羅尼) 등이 발견되었다. 보살상의 밑바닥에는 융희(隆熙) 2년(1908)에 쓰여진 「동시개금존상좌목(同時改金尊像座目)」이 붙어 있어 1908년(순종 2)에 월정사 일대 여러 존상을 개금할 때 이 보살상도 함께 개금했음을 알 수 있다.

13~3

후령통

候鈴筒

Huryeongtong (a reliquary for votive objects)

높이 6.2cm | 지름 3.5cm

미륵보살상의 북장에서 나온 원통형의 후령통으로 금속으로 만들었다. 안에는 오색실에 감긴 오보병(五寶瓶)이 들어 있다. 후령통 바깥에는 각 방위에 맞추어 5개의 거울[오경(五鏡)]이 배치되었는데 뚜껑의 후혈(喉穴)에서 나온 오색실로 고정되었다. 오경은 다섯 종류의 지혜를 상징하며 방위에 따라 방형, 삼각형, 원형, 반월형, 원형 등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14

평창 월정사 남대 지장암 목조지장삼존불감

平昌 月精寺 南臺 地藏庵 木造地藏三尊佛龕

Portable Shrine with the Wooden Seated Triad-Buddha Statues of Ksitigarbha in Jijangam Hermitage in the South of Woljeongsa Temple, Pyeongchang

조선 후기 | 높이 29.0cm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8호

남대 지장암에 봉안되었던 불감으로 17~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통형으로 안에는 중앙에 지장보살좌상이 모셔져 있고, 좌우문의 안쪽에는 각각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이 배치되어 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성불을 뒤로 미룬 보살로

머리를 삭발하거나 두건을 쓴 스님 모습으로 표현된다.

지장보살상은 삭발한 스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신체에 비해 작게 표현되었다. 설법인을 짓고 있는 두 손은 영원사 목불좌상처럼 무릎 위에서 살짝 위로 들고 있다. 좌협시인 도명존자는 합장한 비구형(比丘形)이고, 무독귀왕은 관을 쓴 제왕형(帝王形)이다.

15

월정사 육수관음상

月精寺 六手觀音像

Statue of the 6-handed Avalokitesvara in Woljeongsa Temple

조선(15세기) | 높이 45.0cm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53호

6수(六手) 관음보살상으로 여덟 장의 앞을 세워놓은 듯한 화려한 보관(寶冠)을 쓰고 있다. 상투를 튼 머리칼은 마치 그릇을 이중으로 얹어놓은 것처럼 솟아 있고 일부는 어깨 위로 흘러 내리고 있다. 역삼각형에 가까운 얼굴에는 이목구비가 가늘고 예리하게 표현되었다.

굵직한 귀걸이와 화려한 목걸이, 어깨에서부터 가슴 아래로 길게 내려온 영락과 팔찌 등의 장식이 화려하다. 신체의 표현과 옷주름선 등에서는 유연한 조각 기법이 느껴진다. 가는 허리와 넓은 무릎 그리고 연화좌의 상하에 표현된 연주문(連珠文)이 화려한 대좌는 안정감 있는 삼각형의 구도를 이루고 있다. 전반적인 양식적 특징으로 보아 명(明) 불상의 영향을 받아 조선 초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

영원사 목불좌상 및 복장유물

鶴願寺 木佛坐像 · 腹藏遺物

Wooden Seated Statue of Buddha and Excavated Relics in Yeongwonsa Temple

조선후기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0호

복장 전적으로는 『능엄경언해』와 『법화경언해』가 있고 기타 복장 유물로 원통형의 후령통 1점이 남아 있다.

16-1

영원사 목불좌상

鶴願寺 木佛坐像

Wooden Seated Statue of Buddha in Yeongwonsa Temple

높이 63.0cm

원주 영원사에 봉안되었던 불상으로 정확한 조성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양식적 특징으로 보아 1700년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각형의 얼굴에 가는 눈과 작은 입 등은 1700년 전후 목불상 양식의 특징을 보여준다. 코는 깨어진 것을 새로 만들어 붙인 것이며, 육계 표현은 분명하지 않지만 반달형의 중앙계주와 정상계주가 표현되어 있다. 오른손은 나무로 조성되었고 왼손은 후대에 보수된 것으로 흙으로 만들어졌다.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이다. 두 어깨를 감싼 불의(佛衣)의 옷주름은 두 겹께 처리되었다. 불상 무릎 아래에 가로로 길게 생긴 선은 불상 밑면에 덧댄 목재가 어긋나서 생긴 것이다.

16-2

능엄경언해

楞嚴經諺解

Annotation of The Surangama Sutra

조선(1462년) | 25.5×20.5cm

1462년 간경도감에서 세조의 명으로 간행된 언해본(諺解本)이다. 『능엄경』은 소화엄경(小華嚴經)이라 불리면서 널리 독송되었다. 조선 초에 간행된

판본 가운데는 1401년에 신충(信聰) 등이 주관하고 명호(明昊) 등이 판각한 것과 1443년에 성달생의 발문이 있는 전라도 화암사판(花岩寺板), 그리고 1457년에 원나라 유측의 능엄경 회해본을 저본으로 1455년에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활자본 등이 있다.

16-3

쌍계사판 묘법연화경언해 권2

雙溪寺板 妙法蓮華經諺解 卷2

Lotus Sutra printed with Ssanggyesa Temple woodblocks Volume 2

조선(1545년) | 21.8×18.0cm

세조 8년(1463)에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판본을 저본으로 전라도 나주 쌍계사에서 1545년에 복각해서 간행한 것이다. 이 언해본은 간경도감본 개판 이래 봉서사 간행 본과 더불어 초기에 복각한 판본으로 비교적 정밀하게 판각되었다.

16-4

복장유물 일괄

服藏遺物 一括

Collection of excavated relics

복장 유물로는 동으로 만든 원통형의 후령통 1점이 남아 있는데 크기는 높이가 10cm, 지름 3m이다. 그 외에 오곡과 호박 등이 후령통 안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후령통 밖에 오색실로 고정시켰던 금속제 오방경(五方鏡)과 종이로 오려 만든 오방경 등이 있다.

17

운흥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및 복장유물

雲興寺 木造阿彌陀佛坐像 · 腹藏遺物

Wooden Seated Statue of Amitabha Buddha and Excavated Relics in Unheungsa Temple

조선(1791년 개금)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2호

17-1

운흥사 목조아미타불좌상

雲興寺 木造阿彌陀佛坐像

Wooden Seated Statue of Amitabha Buddha in Unheungsa Temple

높이 43.3cm

삼척 신흥사에 봉안되었던 불상으로 1791년에 개금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개금에 참여한 승려는 홍안(弘眼), 한영(漢英), 광순(廣淳), 팔정(八定), 신겸(信謙), 거영(巨英) 등 6명인데 이들은 당시 유명한 화승(畵僧)들이었다.

전체 크기가 43.3cm로 오른손은 위로 들고 왼손은 배 앞에 두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는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하고있다. 이 불상의 둥근 머리와 얼굴, 착의법과 신체 비례 등은 1700년 전후에 조성된 불상의 양식적 특징이다.

17-2

개금발원문

改金發願文

Balwonmun or a letter of aspiration for gilding the Buddha statue with gold

조선(1791년) | 35.0×65.0cm

1791년 개금 때 봉안된 발원문이다. 한지에 붉은 글씨로 쓰여진 문서의 명칭은 ‘타불 원문(陀佛願文)’으로 기록되어 있다. 불상의 수인 역시 아미

타구품인 가운데 하품중생인을 하고 있고 개금 발원문에도 ‘타불’이라고 한 점을 통해 이 불상은 아미타불임을 알 수 있다. 발원문 끝에는 ‘건륭 56년(1791) 3월에 태백산 운흥사 반야암에서 개금해 큰 절(大寺)에 봉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원문 후미에는 개금 불사에 동참한 승려들을 기록한 연화질(緣化秩)과 시주자 명단 그리고 공양에 참여한 인물들의 명단인 공양질(供養秩)이 차례로 쓰여져 있다.

조선 후기가 되면 거사와 사당이 새로운 시주자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운흥사 아미타불상의 개금 시주자를 통해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즉 대시주자로 사당(舍堂) 행정(行淨)과 공양자로 거사(居士) 범학(帆學) 등이 참여하고 있다.

17-3

후령통

喉鈴筒

Huryeongtong (a reliquary for votive objects)

높이 5.9cm | 지름 3.6cm

원통형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후령통으로 뚜껑에는 후혈(喉穴)의 흔적이 남아 있다.

18

삼척 천은사 금동약사여래입상

三陟 天恩寺 金銅藥師如來立像

Gilt-bronze Standing Buddha in Cheoneunsa Temple in Samcheok

통일신라 | 높이 14.3cm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8호

삼척 천은사 경내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의 금동약사여래입상이다. 천은사 약사여래입상은 왼손에 발우 형태의 약그릇을 들고 있다. 등 뒤에는 광배를 꽂았던 축이 남아 있으며 대좌와 불상은 함께 주조된 것이다. 조화를 이룬 신체 비례, 균형잡힌 불신(佛身), 크고 둥근 머리 위의 육계(肉髻), 원만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상호, 사실적인 옷주름 표현 등에서 통일신라에 조성된 불상임을 알 수 있다.

19

영월 보덕사 석조약사여래좌상

寧越 報德寺 石造藥師如來坐像

Stone Seated Buddha in Bodeogsa Temple in Yeongwol

조선 후기 | 높이 31.5cm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57호

조선 후기에 경상북도 기림사 근처의 불석산에서 채취한 경주 불석(佛石)으로 조성한 약사여래좌상이다. 두 손을 배 앞에 둔 선정인 상태에서 약그릇을 단순화시킨 보주(寶珠)를 들고 있는 모습을 통해 중생들의 병을 치유해주는 약사여래상임을 알 수 있다. 19세기에 불석으로 조성된 약사여래상은 대부분 선정인 상태에서 보주를 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큰 편이며 머리에는 반달모양의 큼직한 중앙계주와 원통형의 정상 계주가 표현되어 있다. 소라모양의 머리칼은 형식화되었고 얼굴은 넓적한 사각형이다. 양 미간이 넓어 정겨움이 느껴지는 인간적인 상화를 갖추고 있다. 바닥면에는 복장공을 따로 만들지 않아 복장유물은 없지만 조선 후기 불석으로 조성한 불상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20

삼척 지장암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복장유물

三陟 地藏庵 木造地藏菩薩坐像·腹藏遺物

Wooden Seated Statue of Ksitigarbha and Excavated Relics in Jijangam Hermitage in Samcheok

조선(1726년)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69호

20-1

삼척 지장암 목조지장보살

三陟 地藏庵 木造地藏菩薩坐像

Wooden Seated Statue of Ksitigarbha in Jijangam Hermitage in Samcheok

높이 23cm

삼척 지장암에 봉안되었던 지장보살상으로 1726년에 수조각승 여찬(呂贊)이 혜찰(惠察), 도관(道寬), 성현(性賢) 등과 함께 조성한 상이다.

석장(錫杖)과 보주(寶珠)를 든 지장보살상의 도상과 달리 지물없이 손을 무릎 위에 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삭발한 승형(僧形)의 지장보살상으로 녹색으로 채색된 머리는 정수리 부분이 높은 편이다. 보살상의 밑바닥면에는 복장의 구멍이 커다랗게 뚫려 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복장공을 막았던 판을 고정했던 못의 흔적이 남아 있다. 지장암 지장보살상은 18세기 대표적인 조각승 여찬이 조성한 것으로 조각수법이 정교하고 복장유물을 동반하고 있어 조선 후기의 불교조각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20-2

복장유물 일괄

服藏遺物 一括

Collection of excavated relics

복장 유물로는 조성발원문을 비롯해 보협진언(寶篋真言) 등의 다라니류와 오색 유리 같은 보석류, 오방경(五方鏡) 등이 발견되었다. 지장보살상의 조성발원문의 명칭은 ‘불상조성발원문(佛像造成發願文)’으로 1726년에 쓰여진 것이다. 조성발원문에는 보살상을 조성한 목적, 시주자, 소임을 맡은 승려, 조각승, 조성연도 등이 기록되어 있다.

21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

原州 龜龍寺 三藏菩薩圖

Buddhist Painting of Three Bodhisattvas in Guryongsa Temple, Wonju

조선(1727년) | 비단에 채색 | 170.0×251.0cm | 보물 제1855호

치악산 구룡사에 봉안된 삼장보살도이다. 삼장보살도는 천장보살(天藏菩薩), 지지보살(地持菩薩), 지장보살(地藏菩薩) 등 천상과 지상, 지하의 교주로 신앙되는 세 보살을 그린 불화이다. 도상의 유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록제 의식집에 의거해 우리나라에서만 형성되어 발전한 독특한 도상으로 알려져 있다.

존상의 배치는 중앙 천장보살, 향우측 지지보살, 향좌측 지장보살이 나란히 앉아있고 보살상 아래에는 좌우로 협시가 두 명씩 합장한 채 중앙의 보살상을 향해 마주보고 있다. 좌우에 배치된 지지보살과 지장보살은 각기 다른 지물을 들고 있다. 지지보살은 왼손으로 경권(經卷)을 들고 있으며 지장보살은 오른손으로는 보주(寶珠)를, 왼손으로는 석장(錫杖)을 잡고 있다.

각 보살상의 대좌 하단은 붉은 바탕의 화기란(畵記欄)을 마련하고 그 안에 화기를 기록하고 있다. 즉 옹정(雍正) 5년(1727년) 5월 4일에 삼장탱을 조성해 치악산 구룡사에 안치했으며 수화승 백기(白基)가 영휘(映輝)와 함께 이 불화를 제작했다는 내용이다.



22

구룡사 삼장보살도 복장유물  
龜龍寺 三藏菩薩圖 服藏遺物

Buddhist Painting of Three Bodhisattvas and a Collection of Excavated Relics in Guryongsa Temple

조선(1727년)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6호

조성발원문과 후령통, 다라니 등이 들어있는 복장주머니가 잘 남아있는데 화기에 기록된 제작 시기 및 연화질 등이 조성발원문과 일치한다.

23

삼척 영은사 괘불  
三陟 靈隱寺 掛佛

Long hanging Buddhist Scroll Painting in Yeongeunsa Temple, Samcheok

조선(1856년) | 비단에 채색 | 840×503cm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8호

삼척 영은사에 봉안된 아의 법회 때 사용한 괘불(掛佛)로 석가여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영산회상도이다. 조선 후기 영산회상도 속 석가여래는 설법인 대신에 성도를 상징하는 항마촉지인을 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영은사 괘불도 이 계통을 계승한 도상이다.

중앙에는 항마촉지인을 한 석가여래가 크게 그려져 있는데 좌협시인 문수보살은 여의(如意)를 들고 있고 우협시인 보현보살은 흰 연꽃을 들고 있다. 8대보살, 10대제자, 범천과 제석천, 사천왕, 팔부중 중 2구, 8금강, 용왕, 용녀, 타방불 등이 본존의 좌우에 대칭을 이루며 배치되었다.

화기에는 함풍(咸豐) 6년(1856) 2월에 괘불 영산탱화를 새로 조성해 태백산 영은사 팔상전에 봉안하였고 수화승 경성 공준(璟攄肯濬)를 비롯해 금섭(肯攝), 성오(性杓), 의잠(懿岑), 찬종(讚宗), 승호(昇皓), 인담(仁潭), 영심(永沈), 재원(在元) 등 9명이 공동 제작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4

영원사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鶴願寺 毘盧遮那佛 後佛幀畫

Hanging Scroll Painting of Vairocana Buddha behind the Buddha in Yeongwonsa Temple

조선(1759년) | 비단에 채색 | 178.5×204.0cm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4호

1759년에 원주 치악산 영원사에 봉안되었던 비로자나불화로 중앙에는 권인(拳印)을 결하고 앉아있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8보살과 사천왕 그리고 용왕과 용녀가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배경은 구름으로 채워져 있는데 본존이 비로자나불이면 좌우 협시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이 불화에서는 좌우협시가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로 표현되어 있어 특이하다. 전반적으로 균열과 채색의 박락이 심하지만 안정된 구성과 치밀한 표현법이 돋보인다. 이 불화는 수화승 오관(悟寬)이 화운(華雲), 묘심(妙心), 쾌湜(쾌식), 최연(最演), 묘희(妙熙), 각감(覺岑) 등과 함께 제작하였다. 화기의 내용 가운데 경성에 거주하는 명월사당(明月舍堂) 각순(覺順)이 화주를 맡은 것과 처사 명최(明最)와 명원(明願) 부부가 바탕천의 시주자로 동참하고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러한 점에서 영원사 비로자나 후불탱화는 조선 후기에 새로운 시주층으로 활약하는 사당과 거사의 활동을 규명하는데 귀중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25

영원사 감로탱화  
鶴願寺 甘露幀畫

Buddhist Painting of Buddha Giving a Sermon in Yeongwonsa Temple

조선(1759년) | 비단에 채색 | 138.0×165.0cm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5호

영원사 불전에 하단탱화로 봉안되었던 조선 후기의 감로탱화로 1759년 수화승 오관(悟觀)이 단독으로 그린 불화이다. 영원사 비로자나불 후불탱화와 같은 해에 조성된 것이다. 감로탱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감로(甘露)를 베푸는 수륙제 장면을 그린 것이다.

감로탱은 3단으로 화면을 구성하는데 이 불화는 크게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면 상단 중앙에 오여래를 배치하고 향좌측에 인로왕보살(閼路王菩薩), 향우측에 지장보살과 관음보살을 배치해 극락으로 맞이하는 내영(來迎) 장면을 표현했다. 화면 중단 중앙에는 공양단(供養壇)을 중심으로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측면으로 표현된 아귀(餓鬼)가 배치되었다. 화면 향좌측에는 법패와 작법을 하는 의식승과 시주자 및 공양자가 표현되었고, 화면 외곽 주변으로 지옥의 모습과 생활 풍속이 묘사되었다. 18세기 감로도에 등장하는 7여래와 천도된 영가를 모신 벽련대 같은 새로운 요소는 등장하지 않고 5여래를 배치한 전통 양식을 계승한 작품이다.

26

운수암 관음변상탱화  
雲水庵 觀音變相幀畫

Buddhist Painting of Avalokitesvra in Unsuam Hermitage

조선(1790) | 흑색 비단에 금선묘 | 61.0×40.0cm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7호

삼척 영은사 산내 암자로 추정되는 운수암에 봉안되었던 불화로 선재동자(善財童子)의 방문을 받은 관세음보살이 그에게 마정수기(摩訶證記)를 주는 장면을 그린 도상이다.

건륭 55년(1790년) 11월에 화승 신겸(信謙)이 조성했으며 검은 바탕에 금선묘로 그린 선묘화(線描畵)로서 활달하고 유려한 필선이 잘 표현되어 있다. 관음보살은 선재동자를 제도하기 위해 동자의 몸으로 변화한 모습으로 복장도 선재동자와 유사하다. 이는 관음 32응신의 한 장면인 동남신(童男身)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선후기 불화 가운데 이처럼 관음보살 자신의 몸을 변화한 응신 장면을 그린 불화는 유례가 거의 없다.

27

운흥사 천룡탱화  
雲興寺 天龍幀畫

Buddhist Painting of a thousand Dragons in Unheungsa Temple

조선(1755년) | 모시에 채색 | 98.0×85.0cm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8호

1755년 칠월에 삼척 운흥사에서 조성한 천룡탱(天龍幀)으로 수화승 천봉(天鵬)이 해천(海天)과 함께 제작한 것이다.

화면 중앙에 용왕을 중심으로 한 팔부중과 위태천, 천왕(天王), 일궁천자(日宮天子) 및 동자(童子) 3위 등이 구름을 배경으로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다. 천룡탱화의 중심에 위태천이 배치된 다른 불화와 달리 운흥사 천룡탱속의 위태천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작게 표현되었다. 활달한 필치, 자유로운 포즈를 취한 신장들의 모습 등으로 화면은 생동감이 넘친다. 어두운 적색과 녹색의 색조는 18세기 중엽 불화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28

강릉 백운사 소장 현왕도  
江陵 白雲寺 所藏 現王圖

Painting of Samantabhadra Bodhisattva and his assistants in the nether world in Baegunsa Temple in Gangneung

조선(1879년) | 비단에 채색 | 116.0×101.5cm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75호

강릉 백운사에 소장되어 있던 불화로 1879년에 조성되었다. 화면의 중앙에는 열라대왕을 중심으로 좌우에 대륜성왕(大輪聖王)과 전륜성왕(轉輪聖王), 판관(判官)·녹사(錄事)·사자(使者)가 각각 2위, 동자가 4위 배치되

었다. 존상들의 자유로운 자세와 다양한 지물 등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구도를 이루고 있으며, 인물상들의 표정은 생동감있게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옷주름선은 경직된 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밀한 표현력이 돋보인다.

금강산 표훈사 불지암(佛地庵)에서 조성해 금강산 장안사(長安寺)에 봉안했던 것으로, 수화승 화산재근(華山在根)이 사미 철유(詰侑)와 함께 그린 작품이다. 19세기 말에 조성되었지만 화승의 표현력이 뛰어난 불화에 속한다.

29

보덕사 사성전 후불탱화 및 복장유물

報德寺 四聖殿 後佛幀畫 · 腹藏遺物

Hanging Scroll Painting behind the Buddha and Excavated Relics in the Hall of Saseung (four saints) in Bodeoksa Temple

조선(1868년)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9호

29-1

보덕사 사성전 후불탱화

報德寺 四聖殿 後佛幀畫

Hanging Scroll Painting behind the Buddha in the Hall of Saseung (four saints) in Bodeoksa Temple

비단에 채색 | 178.0×227.0cm

영월 보덕사의 16나한이 봉안된 사성전(四聖殿) 후불탱화로 1868년 의운 자우(意雲慈雨)와 15명의 화승들이 함께 제작한 불화이다. 불화의 복장주머니에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사성전에 16나한상과 이 후불도를 봉안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불화는 설법인을 한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로 제화갈라보살과 미륵보살을 배치한 수기삼존도(授記三尊圖) 형식이다. 석가여래의 무릎 아래에는 동자형의 청사자를 타고 여의(如意)를 든 문수보살과 흰 코끼리를 타고 연꽃을 든 보현보살이 배치되었다. 석가삼존상 뒤에는 아난과 가섭 존자를 중심으로 좌우로 10대 제자가 5명씩 대칭적으로 표현되었다. 높은 육계와 함께 표현된 정상계주, 이완된 필선, 적색과 청색의 채색, 옷자락 끝에 표현된 꽃무늬, 좌우 협시 보살상의 광배에 표현된 화염문, 문수동자와 보현동자의 등장, 도안화된 채운(彩雲) 등은 19세기 불화의 양식적 특징이다. 보덕사 사성전 후불탱화는 경상도 지역에서 19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화승 의운자우가 강원도에서 제작한 불화로 불보살의 안정감 있는 형상과 조화로운 색채 등 그의 화풍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29-2

복장유물 일괄

腹藏遺物 一括

Collection of excavated relics

복장 유물은 불화의 위쪽에 걸려있던 윗 부분은 삼산형(三山形)이고 아래 쪽은 둥근 모양의 두 개의 비단 복장낭에 들어있던 것들이다. 복장낭에는 시주자 이름과 발원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 안에 보자기로 싼 뚜껑이 있는 사각 갑 형태의 종이 후령통, 발원문(1868년)과 팔엽대홍련주(八葉大紅蓮呪), 천원(天圓), 지방(地方), 다라니, 범자가 한 글자씩 쓰여진 종이 등이 발견되었다. 후령통의 위 아래에는 붉은 색의 범자가 한 자씩 쓰여져 있고 안에는 오색실이 들어 있다. 당시 불화 복장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30

삼척 영은사 석가삼존도와 복장유물

三陟 靈隱寺 釋迦三尊圖 · 腹藏遺物

Painting of Shakyamuni Triad and Excavated Relics in Yeongunsa Temple, Samcheok

조선(1841년)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70호

30-1

삼척 영은사 석가삼존도

三陟 靈隱寺 釋迦三尊圖

Painting of Shakyamuni Triad in Yeongunsa Temple, Samcheok

조선(1841년) | 비단에 채색 | 198.0×287.0cm

삼척 영은사에 소장되었던 불화로 영산전에 봉안하기 위해 1841년에 제작한 석가삼존도이다. 면 바탕을 붉은색으로 채색한 뒤 은니로 석가여래가 영축산에서 설법하고 있는 장면을 간략하게 표현했다. 본존인 항마촉지인을 한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 협시보살로는 연꽃을 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배치했다. 석가삼존 뒤에는 아난과 가섭존자가 합장을 하고 서 있으며, 삼존의 앞에는 연꽃을 든 두 동자가 각각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상징인 사자와 코끼리를 타고 연화좌 위에 앉아있다.

각 존상의 몸체부에는 백색안료, 머리칼은 군청(群靑)과 녹청(綠靑), 연화가지는 녹청을 사용해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구성 요소의 윤곽과 옷주름 등 세부 형상은 은니선(銀泥線)으로 그렸다. 당시 유행하던 화풍이 잘 반영되어 있는 불화로 제작자와 조성 연대(1841년)를 명확히 알려주는 작품이다.

30-2

후령통

候鈴筒

Huryeongtong (a reliquary for votive objects)

12.0×8.6×2.0cm

불화 배면에서 발견된 복장중 하나로 종이로 만든 후령통이다.

30-3

복장유물 일괄

腹藏遺物 一括

Collection of excavated relics

불화의 뒷면에서 발견된 복장 유물로 후령통(候鈴筒), 오보병(五寶瓶), 진언다라니(眞言陀羅尼), 발원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영은사 범일국사 진영

靈隱寺 梵日國師 眞影

Portrait of National Preceptor Beomil in Yeongunsa Temple

조선(1788년) | 비단에 채색 | 94.5×63.0cm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0호

삼척 영은사에 소장되었던 범일(梵日, 810~889) 국사 진영으로 화면 아래에 화기(畵記)가 기록되어 1788년에 조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범일국사는 신라 말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인 사굴산파(闇嶺山派)의 개산조(開山祖)이다.

붉은 가사를 걸친 채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화면 왼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의자에 앉은 형식의 진영은 바닥에 결가부좌(結跏趺坐)로 앉은 형식보다 일반적으로 고식(古式)에 속한다. 오른쪽 손목에는 엄주가 길게 감겨져 있고 두 손으로는 비스듬하게 주장자(拄杖子)를 들고 있다. 청회색의 승복과 붉은 가사의 표현, 바닥의 화문석 등은 조선 후기 진영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화면 왼쪽에는 '창건주범일국사진영(創建主梵日國師眞影)'이라고 쓰여 있다.

32

영은사 사명당대사 진영  
靈隱寺 四溟堂大師 眞影

Portrait of Great Seon Master Samyeongdang in  
Yeongsusa Temple

조선후기 | 비단에 채색 | 95.5×65.0 cm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1호

삼척 영은사에 소장되어 있던 사명대사 유정(1544~1610)의 진영이다. 사명대사 유정은 서산대사 휴정(休靜, 1520~1604)과 함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승군(僧軍)의 지도자로 활약했으며, 전쟁이 끝난 후 외교사절단으로 파견되어 일본에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들을 귀환케 하였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화면 왼쪽을 비스듬히 바라보고 있는데 오른손에는 염주를, 왼손으로는 주장자를 들고 있다. 의자에 불자(拂子)를 걸어놓은 모습을 비롯해 채색과 문양 등 모든 화풍이 범일국사 진영과 같다. 이 두 진영은 같은 시기에 한 화승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진영 속 사명당대사는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 실제로 생전에 수염을 길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진영의 화면 왼쪽에는 '대광보국송록대부사명당대선사진영(大匡輔國崇祿大夫四溟堂大禪師眞影)'이라고 쓰여 있다.

33

강릉 보현사 십육나한도  
江陵 普賢寺 十六羅漢圖

Painting of Sixteen Arhats in Bohyeonsa Temple in Gangneung

조선(1882년) | 비단에 채색 | 100.5×194.0cm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71호

보현사 영산전에 봉안할 목적으로 대웅전 석가삼존도 및 현왕도와 더불어 1882년에 제작된 16나한도 가운데 일부이다. 나한도 속의 나한은 자유롭고 일탈한 성격을 드러내듯 각기 개성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통력이 뛰어나서 신령스러운 동물들을 마음대로 회통하는 모습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호리병 속으로 용을 끌어들이는가 하면, 여의주로 용을 회통하고, 경전을 읽는 등 제각각 다른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현사 나한도는 16나한을 4쪽에 나누어 그렸는데 이 두 쪽에는 각 5명의 나한이 그려지고, 나머지 2쪽에는 각 3명의 나한이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5명씩 그려진 나한도 2폭만 남아있다.

화면 하단에 쓰여진 화기에 의하면 광서(光緒) 8년(1882) 3월 13일에 대웅전 삼존상, 영산전 16존상과 제석천 2구 등을 개채했고 각 단 탱화와 현왕탱을 그려 점안하고 강릉 보현사에 봉안했다고 한다. 수화승은 석옹 철유(石翁 喆侑)이며 축연(竺衍), 완형(玩炯), 인휴(仁休), 사미 홍순(洪洵), 사미 득눌(得訥) 등이 동참해 그린 것을 알 수 있다.

34

팔만대장경(고려대장경)  
八萬大藏經(高麗大藏經)  
Tripitaka Koreana

1865년 인경 | 24.0×84.6cm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54호

월정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으로 해인사의 고려대장경 경관을 인경(印經)한 것이다. 조선 고종 2년(1865)에 찍은 것으로 월정사에서 보관하고 있다. 판의 끝에는 경전의 이름과 권수의 간행 차례가 기록되어 있다. 천자문 순서대로 새겨 놓았는데 총 1,511종 6,802권으로 81,137매로 되어 있다. 고려 때는 물론이고 조선 초에도 인경된 적이 있지만 전부 남아있는 것은 몇 질 전하지 않는다. 이 대장경은 1865년에 인경한 2부 가운데 한 질이다.

35

오대산 중대불량문  
五臺山 中臺佛糧文

Book containing the list of donors both monastics and laypeople for reconstructing Jungdae Shrine or the Hall of Sublime Equanimity in Mt. Odaesan in the late-Joseon period

조선(1814년) | 34.5×26.6cm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34호

화주 영담(瀛潭)스님 등이 중심이 되어 사문 경의가 취지문을 작성하고, 각 사찰 불자들의 시주명을 기재하여 만든 책으로 적멸보궁에서 보관하던 것이다. 표제가 '중대불량문(中臺佛糧文)'으로 묵서되어 있으며, 우측하단에 '보궁유진(寶宮留鑑)'이라 기록되어 있다. 순조 14년(1814)에 사문(沙門) 경의(警誼)가 불자들에게 시주를 권하는 내용의 서문이 실려 있다. 그리고 앞쪽에는 김수재(金綬宰)를 비롯한 일반 대시주자의 이름과 소원문이 보이고 있으며, 이후에는 본사비구를 비롯하여 인근의 건봉사 및 경상도 은혜사 스님들의 시주명이 차례대로 기재되어 있다. 권말에는 이를 증명하는 각 사찰명이 지역별로 기재되어 있으며, 말미에 '갑술년유월일(甲戌年六月日) 적멸보궁중서(寂滅寶宮中書)'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36

오대산 중대 불량계원수복문  
五臺山 中臺 佛糧禪員樹福文

Transfer record of a rice field to Jungdae Shrine or the Hall of Sublime Equanimity from Seodae Shrine in Mt. Odaesan in the late-Joseon period

조선(1825년) | 41.4×29.6cm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35호

본사의 화주(化主)인 영담(瀛潭)장로가 적멸보궁의 쇠락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을 보고 그의 문인 신운 등이 앞장서서 권선한 사실을 민현이 1825년에 기록하여 만든 책이다.

표제에 '중대불량계원수복문(中臺佛糧禪員樹福文)'으로 희미하게 묵서되어 있으며, 그 위에 인기(印記)가 날인되어 있다. 권수에는 순조 25년(1825)에 취봉민현(驚峯愍玄)이 쓴 연기문(緣記文)이 실려 있으며, 권말에는 이 자료를 증명해 주는 사찰질(寺刹秩)이 수록되어 있다. 연기문에는 권선의 과정 등이 적혀 있고 전반부에는 이와 같은 취지에 동참한 당시 인근사찰 스님들의 범명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으며, 후반부에는 일반 시주자의 범명이 열거되어 있다.

37

평창 오대산사고등록  
平昌 五臺山史庫謄錄

Collection of the Odaesan Mountain historical archives in Pyeongchang

조선(1840~1841년) | 29.0×27.5cm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59호

오대산사고를 관리하는 전반적인 사항, 관리책임자와 관련자들의 명단, 사고지의 경계, 근무자들의 급료 등 19세기 중반 오대산사고의 관리에 대한 상세한 사정을 알 수 있는 문건이다.

작성연도는 기축년 삼월의 사고군청(史庫軍廳) 화재 때 등록과 완문이 모두 소실되었다는 기록과 10여년이 지난 경자년에 이를 다시 작성하였다는 본문 내용을 통해 1840~1841년으로 추정된다. 이 등록(謄錄)에 수록된 마지막 기록은 1901년 작성된 것으로 오대산사고의 서책은 1913년 이후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기관, 반출되었다. 이후 실질적인 사고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등록은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 간략한 내용이지만 오대산사고와 관련한 희귀한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38

용다사 동종

龍茶寺 銅鍾

Bronze Bell of Yongdasa Temple

조선(1787년) | 높이 51.0cm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3호

원주 구룡사(龜龍寺)에 소장되었던 종으로 1787년 화천 용다사에서 조성되었다. 용뉴(龍鈕)는 매우 단순화된 두 마리 용으로 만들어져 있고, 용뉴를 중심으로 연꽃이 천판(天板)을 덮듯이 배치되었다. 종의 몸체에는 문양대, 연곽, 당좌(撞座) 등이 생략되고 단순히 3개의 횡선대(橫線帶)만 표현되어 있다.

범종의 상단에는 한글로 '양구현 심곡사에 평서 5년(1879) 청신녀 을사생 황씨가 수명장수와 비구 초허당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시주하였다'는 내용이 음각되어 있다. 범종의 하단에는 선각과 점각으로 '건륭 52년(1787) 5월 용화산(龍華山) 용다사(龍茶寺)에서 70근의 중종을 만들었다'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전통 형식에서 벗어난 중국 범종 양식을 수용한 조선후기의 범종이다.

39

평창 월정사 밀부

平昌 月精寺 密符

Disc used for mobilizing military forces given to Woljeongsa Temple in Pyeongchang

조선(1800년) | 지름 5.3cm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58호

월정사 밀부는 1800년(정조 24)에 예조에서 월정사 주지에게 내린 것으로 원형 동판(銅版), 나무 상자, 끈이 달린 가죽 주머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밀부주머니는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허리에 찰 수 있는 허리띠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버클에 해당하는 띠고리 장식은 옥으로 만들어졌다.

원형의 동판 앞면에는 '강원도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수호 선교 겸 팔도 석품 제일도원장 밀부자(江原道五臺山中臺寂滅宮守護禪敎兼八道釋品第一都院長密符者)', 뒷면에는 '예조판하 경신 정월일 국행교시시 상언내신주급인 급도(禮曹判下庚申正月日國幸敎是時上言內新鑄給印信圖)'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왕이 사찰에 내려 준 밀부로는 강원도에서 발견된 첫 사례이고 1800년에 정조가 오대산 월정사에 하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선후기 월정사의 불교사적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40

한암스님가사

漢巖袈裟

Kasaya of Venerable Hanam

일제강점기 | 등록문화재 제645호

한암스님께서 착용한 가사는 3점으로 등록문화재 제645호로 지정되어 있다. 가사(袈裟)는 범어(梵語)인 '카사야(Kasaya)'에서 음을 딴 것으로 장삼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 입는 스님들의 법의(法衣)를 말한다. 용도에 따라서는 삼의(三衣) · 승의(僧衣) · 비구의(比丘衣)라 하며, 공덕의 측면을 강조해 법복(法服) · 법의(法衣) · 불의(佛衣) · 공덕의(功德衣)라고도 한다. 시주를 받아서 얻은 낡은 천조각으로 만들되 조각조각 베어서 다시 꿰매어 만들기 때문에 기웠다는 의미를 지닌 납(納)자와 결합시켜 납가사라고도 부른다.

40-1

25조 홍색 모본단 가사

25條 紅色 模本緞 袈裟

Red ceremonial robe embroidered with a sun and moon design worn by the Venerable Hanam

101.0×234.0cm

한암스님께서 착용하셨던 가사 중 하나로 해와 달이 수 놓아진 붉은색 가사에 2개의 원을 만들어 그 안에 해와 달을 오색실로 수놓았다. 해와 달의 중앙에는 각각 범어(梵語)를 수놓고 주위에는 구름문과 연꽃문으로 장엄하였다.

40-2

21조 금직 금란가사

21條 金織 金欄袈裟

Ceremonial robe embroidered with a sun and moon design worn by the Venerable Hanam

109.7×205.4cm

한암스님께서 착용하셨던 가사 중 하나로 해와 달이 수 놓아진 붉은 가사로 조선 마지막 임금인 순종을 모시던 김상궁이 직접 수 놓아 한암스님께 공양한 것이다.

40-3

100조 담홍색 모시가사

100條 淡紅色 毛施袈裟

Red ceremonial robe embroidered with a sun and moon design worn by the Venerable Hanam

83.5×321.0cm

한암스님께서 착용하셨던 가사 중 하나로 금실로 원문양을 수놓고 해를 상징하는 삼죽오와 달을 상징하는 토기로 장식하였다.



# 월정사성묘박물관 개관 지정문화재

Woljeongsae Museum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총괄      해운스님  
기획      홍순욱  
도판해설      유근자  
진행      김원중 김홍두 서은호 안다은 차민재  
보조      박희철 박인석

발행처      월정사성묘박물관  
주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76  
전화      033) 339-7000  
팩스      033) 332-6916

디자인 / 제작      (주)도반미디어

발행일      2019년 10월 11일

© 2019 월정사성묘박물관

이 책의 저작권은 월정사성묘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모든 자료는 월정사성묘박물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사·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791196 590215  
ISBN 979-11-965902-1-5